

넥센의 디자인, 세계에 포커스를 맞추다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Design Award 수상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에도 더 많은 마음들을 모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2010. 12	독일 IF Design Award 수상 (독일국제포럼 디자인하노버)
2010. 12	N9000 Good Design 우수상 (한국 디자인 진흥원장상)
2010. 12	웨어드 코리아 제조업부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0. 11	지속가능성경영대회 타이어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10. 06	글로벌고객만족대상 타이어부문 1위 (일본 능률협회 컨설팅)

## 2010 IF Design Award 수상작



**WINGUARD  
SPORT**

비대칭형 트레드패턴의  
고속주행 거울용 타이어

**N8000**

스포츠 세단에 날개를 달다  
품위있는 질주본능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

하일클릭  
넥센타이어

NEXEN

동그란 타이어, 순환하는 세상



04 당신을 응원하는 책

06 넥센명인

## PURPLE

- 08 Global ①  
2011 상하이 모터쇼
- 12 Global ②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 14 Sports  
국내외 모터스포츠 후원
- 18 Product  
신제품 CP661 출시
- 20 HRD  
생산 · 품질전문가 과정
- 22 Issue  
무재해 2배수 달성
- 24 Best Team  
끈기 있는 혁신 선두 금형관리파트
- 26 Tire  
매혹적인 두 바퀴 탈것, 자전거
- 30 Car  
자동차 첨단기술 현주소
- 34 Nexen Friends ①  
타이어테크 부평점

## GREEN

- 35 나무이야기
- 36 자연에서 배우다  
소와 구더기에 빚진 현대의학
- 40 자연에서 놀다  
창녕 우포 원시늑체험
- 44 자연에서 만나다  
재활용 디자이너 박현정
- 48 자연에서 먹다  
청양고추 vs 타이고추
- 51 Nexen Friends ②  
포항 경민타이어테크

## RED

- 52 우리 파트를 소개합니다  
미주팀
- 56 가족사진 찍는 날  
품질검사팀 한명수 조장 가족
- 58 길 그리고 우리  
천 년 수도 그늘 아래서 쉬어가기
- 62 참, 고맙습니다  
머리는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 64 별별 콘테스트  
우리집 반려동물
- 66 나눔 그리고 어울림  
신입사원 OJT 성과발표회를 마치고
- 67 Nexen Friends ③  
타이어웍스타 집집1호집

## BLUE

- 68 사진의 기술  
나만의 작품 사진 찍기
- 70 운동의 기술  
일복 많은 손을 위한 스트레칭
- 72 관계의 기술  
아저씨의 버킷 리스트
- 74 생활의 기술  
전자기기 장수의 비밀,  
청소에서 찾다

## 76 News

2011 Vol.44

HELLO  
NEXEN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1년 여름호 통권 44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1년 7월 15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신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인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에프& (02-795-3364) | 디자인 어진아, 지아영, 장진숙, 김유진, 김지  
선 | 사진 사진과책 (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컬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창녕생산본부 부사장 이응용입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간단한 일이 왜 이리 어려운지 한참을 고민하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간 여러 책을 접하며 공감한 적도, 가슴 설렌 적도 많았습니다. 또 유난히 마음에 들어오는 책을 만날 때면 여러 번 되새겨 읽고 구절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는데 막상 한 권을 고르려니 여러 생각이 뭉뚱 뽕 선뜻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러다 결국 집어든 책이 <명심보감(明心寶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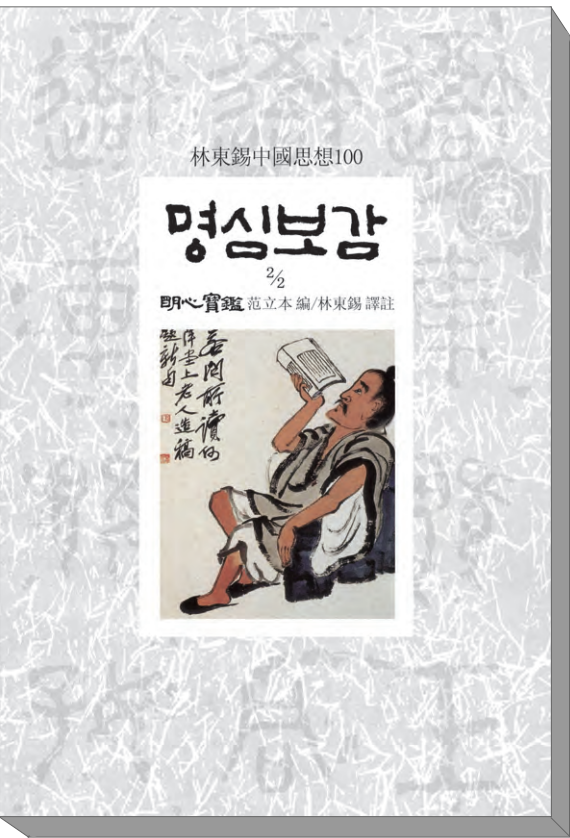
어린 시절 백부님께 <명심보감>을 배우던 때가 기억납니다. 백부님 앞에서 큰 소리로 구절구절을 암송하면 잘한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못한다 꾸중을 듣기도 했던 추억이 어린 책입니다. 또 새로운 생각과 유행을 담은 책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요즘에도 때때로 꺼내 가슴에 닿았던 구절을 다시 읽어 보는 책이지요.

<명심보감>은 밝은 마음을 비추어 보는 보배 같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추적(秋適)이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각종 고전에서 좋은 문구를 발췌해 만들었으며 조선 시대까지 대표적인 초학(初學)용 입문교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양심을 기르는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평범한 진리 속에서 삶의 지혜를 파악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고전이기도 하지요.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잠언(箴言)으로 두고두고 숙독할 만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니 전통적 가르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심보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도덕과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지족(知足)의 겸양과 덕성, 효를 되새기게 합니다. 요즘처럼 가정이 붕괴되고, 서로를 믿기 어렵게 된 각박한 사회의 수양서로써 더없이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마스크에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더욱이 남남지간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두고 소송을 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자식들이 부모 공양은커녕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



< 명 심 보 감 > 효 행 편 (孝 行 篇)

옛 스승이 전하는  
함께사는 지혜

글 이응용 창녕생산본부 부사장

례 등 예와 효의 나라였던 과거의 영광은 간데없습니다. 이럴 때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잘 모시지 못했다는 후회와 함께 <명심보감> 효행편의 여섯 번째 구절이 생각납니다.

孝順은 還生孝順子요 五逆은 還生昨逆子하나니 不信하거든 但看簾樓水하라 點點瀟瀟不差移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한 자는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고,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다시 거역하는 자식을 낳나니, 믿어지지 않거든 저 처마 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많은 적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조직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의범절이요,

예의범절의 기본은 어른을 공격하는 마음인

효(孝)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많은 적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조직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의범절이요, 예의범절의 기본은 어른을 공격하는 마음인 효(孝)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시진방지다’, ‘썩수가 없다’, ‘꼴 보기 싫다’ 등 좋지 않은 말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예’입니다. 속담 중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서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버릇없이 굴던 사람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엉망진창 버릇없이 군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동료 선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인생의 지침이 되는 문구를 읽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넥센타이어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해왔고 ‘글로벌 탑 10’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의 구조조정, 중국 청도공장의 증설, 창녕공장의 신설 등 많은 일들을 숨 가쁘게 처리해 나가고 있어 전 부서 임직원들이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넥센타이어 가족 모두는 상대를 배려하고 기본예절을 지켜 밝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함에도 이런 글을 펼치는 것이 몹시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곧 몸과 마음을 한층 더 지치게 하는 더위가 다가옵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 같은 일과 꿈을 나누는 넥센타이어 가족 여러분의 여름에 오래된 스승의 지혜가 한줄기 시원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㉞



# 현장을 사랑한 넥센호랑이

양산생산담당 조상문 담당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옛날 옛날에만 호랑이가 살았던 것은 아니다.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에는 요즘도 매일 찌렁찌렁 호령하는 호랑이가 나타난다. 정련공정부터 가류공정까지 양산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 현장을 총괄하는 조상문 담당이 바로 그 주인공.

“질책할 때 엄한 편이라 그런가 봅니다. 생산·제조 공정은 정확하게 맞물려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땀방울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니 현장에만 서면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그의 꾸중은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두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기 때문에 전파성을 높이려나 저절로 소리가 커진단다. 조상문 담당은 오히려 개인의 실수는 조용히 독립된 공간에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자신이 호랑이처럼 소리를 높이더라도 그 안의 숨은 뜻을 읽어 달라고 했다.

무섭기로 소문난 그지만 그만큼 현장 사랑은 특별하다. 입사 23년 차로 성형파트 막내에서 전 공정을 책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장은 곧 그의 전부나 마찬가지. 조상문 담당은 이야기 내내 “넥센타이어의 꽃은 생산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시절 혈기 하나로 사업에 도전했다 일찍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가 제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지요, 저를 믿는 가족과 아침에 눈 뜨면 가야 할 현장,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동료들, 열정을 다해 완성한 타이어가 모두 소중한 재입니다.”

한때 큰 위기가 닥쳤던 넥센타이어를 승승장구하는 오늘날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청도나 창녕을 방문할 때면 특히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조상문 담당.

“저를 비롯해 힘들 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넥센인의 힘이지요. 청도와 창녕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데에 다시 한 번 넥센인들의 지력이 발휘될 겁니다.”<sup>㉠</sup>







## 신제품 N'blue 선보인

친환경 타이어 포함 20개 제품 공개

## 2011 상하이 모터쇼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상하이 모터쇼(2011 Auto Shanghai)가 지난 4월 19일부터 열흘간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오는 2011년 하반기 내로 출시 예정인 친환경 타이어 N'blue를 비롯한 총 20여 개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래를 위한 혁신'이란 2011 상하이 모터쇼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넥센타이어의 신제품은 전 세계 바이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글 황개민 상품기획팀 과장, 정해봉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대리



### 중국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선보이다

상하이 모터쇼는 매 홀수년에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로 세계 5대 모터쇼(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동경, 파리, 제네바)에 버금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규모가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올해는 총면적 20만㎡에 세계 150개국, 2,000여 업체가 참여했으며 '미래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Tomorrow)'이라는 주제로 상하이 신국제전람센터(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는 전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 70여 개를 비롯해 미쉐린, 브리지스톤, 던롭 등 7개 메이저 타이어 양산업체가 참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중국에서의 잇따른 OE(Original Equipment)타이어 공급 체결을 발판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11년 하반기 내로 출시 예정인 친환경 타이어 N'blue, N9000 등의 UHP군 6패턴, CP672 등 HP군 4패턴까지 총 20개 패턴, 23개 사이즈를 출품하며 참가했다.

넥센타이어 부스는 200㎡의 공간에 4면 개방형의 복층 타입으로 N8000을 장착한 스포츠카 아우디 R8과 Rodian HP를 장착한 SUV 차량 Porsche Cayenne S를 전시했다. 현지 전자 현악단의 공연과 국내 레이싱모델의 퍼포먼스, 퀴즈쇼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어 전시기간 내내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였다.




## 세계는 친환경, 실용성, 고급화에 집중한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예상대로 친환경 제품이 큰 화두가 되었다. 완성차업체는 친환경 차량(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을 대거 전시했고 대부분의 타이어업체도 친환경 제품을 전시 부스의 메인 컨셉으로 배치했다. 특히 미쉐린과 브리지스톤은 LRR 테마 구성으로 여타 국제 모터쇼에서 볼 수 없었던 신개념 홍보 방식을 도입해 시선을 끌었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유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수요국이 될 중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가족 중심의 여가용 고급 차량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럭셔리 SUV가 대거 전시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실용성과 고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에 맞게 타이어도 저인치에서 고인치 중심으로 집중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 참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등극한 중국의 엄청난 잠재력을 느끼고 넥센타이어가 나아갈 길을 찾는 좋은 기회였다. 먼저 현지 시정에 맞추어 연비 효율성이 강점인 친환경 타이어를 조기 도입하고 중국 RE(Replacement Equipment)타이어 시장을 위해 고인치 제품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국 OE타이어 부문은 중국 메이커의 브랜드 성장에 힘입어 잠재 수요 증가와 친환경 차량 출시를 대비한 차별화된 전략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지인에 한층 다가가는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선행된다면 거대 시장인 중국에 넥센타이어의 발도장을 찍는 것은 물론 세계 10대 타이어 회사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N'blue ECO

● N'blue ECO는 친환경 Low Rolling Resistance Compound를 적용하여 노면에 대한 회전저항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최적의 저중량 설계로 주행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므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제품이다. 중국 시장에는 사계절용으로 2011년 하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N'blue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연료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최소화하는 넥센타이어의 친환경 컨셉 타이어다. 신소재 사용과 기술력을 결합해 기존 자사 동급제품보다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을 약 20% 감소시키고 비대칭 패턴 디자인 적용으로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보이는 것이 큰 장점이다. 넥센타이어를 의미하는 N과 blue라는 컬러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청량감 및 산뜻한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생태계를 뜻하는 Ecology를 합성하여 최종 패턴 네이밍을 확정했다.

## 상하이 모터쇼에서 주목받은 넥센타이어

# Best3



N8000

●● N8000은 올해 3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IF Award에서 타이어부문 디자인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최적의 주행성능을 위한 비대칭(Asymmetric) 패턴디자인을 적용했다. 한층 강화된 조종응답성으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이 돋보이며 넥센타이어의 대표적인 UHP(고성능)타이어 제품이다. N8000은 올해 하반기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폭넓고 까다로운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CP661

●●● 더욱 향상된 주행성능, 부드러운 승차감에 저소음기능까지 CP661은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두루 갖춘 제품이다. 특히 넥센타이어의 첨단기술인 OBCS(Optimized Belt Contour System)을 적용, 균일한 접지압력 및 넓은 접지면을 확보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빗길에서의 제동력을 극대화했다. CP661은 중국 LOCAL Car Maker에 OE타이어로 진출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6월 호주 소비자협회가 발행하는 <Choice>지의 제품 테스트에서 전체 18개 브랜드 중 상위 6개 브랜드만이 선정되는 구매추천(Choice to Buys) 리스트에 선정되었다. 젯은 노면에서의 코너링 테스트에서 전체 2위를 기록, 뛰어난 품질력을 공인받은 제품이다.





## 더 가깝게, 더 편하게, 더 재밌게!

### 넥센타이어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넥센타이어가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 총 4개국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 최신 웹 트렌드를 적용한 화려한 비주얼과 편리한 정보검색 기능으로 무장한 다국어 홈페이지를 살펴보자.

글 최병운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넥센타이어의 다국어 홈페이지는 국문과 인터넷셔널 홈페이지와의 통일감은 유지하고, 깔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넥센타이어만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메뉴는 간결하게 정리해 고객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고객 특성을 고려해 제품을 새롭게 분류, 재구성했다. 또한 제품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로 구성했다. 고객을 위한 부분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홈페이지에서 제품과 구매에 관련된 문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해외 A/S네트워크를 추가했다. 또 넥센타이어의 소식을 비롯해 우리나라 문화까지도 알 수 있는 넥센타이어 웹진 <넥센투데이>를 게시해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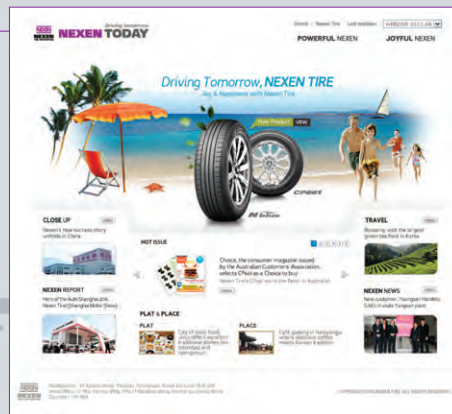
스포츠마케팅 부분도 강화했다. 미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해외 모터스포츠 Formula Drift를 비롯한 해외지역의 모터스포츠 활동과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이나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같은 국내 모터스포츠 활동,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야구팀 넥센 히어로즈의 활동 등 넥센타이어의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포츠 메뉴를 신설했다.

이번 리뉴얼은 나날이 발전하는 넥센타이어의 위상과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서비스를 강화할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로 넥센타이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sup>1)</sup>

#### ● 세련되고 화려한 비주얼

- 4개의 제품(N9000, N8000, N6000, CP672) 동영상과 기술 홍보 동영상
- 퍼플과 화이트를 컨셉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 적용
- 제품 이미지를 활용한 성능 안내로 소비자의 빠른 이해를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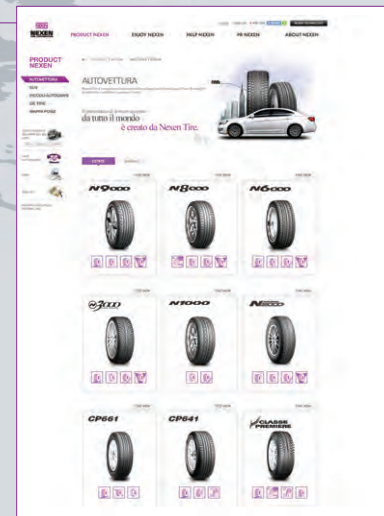


#### ● 재미있고 다양한 볼거리

- Formula Drift,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넥센 히어로즈 등 스포츠마케팅 메뉴 신설
- 넥센타이어 웹진 <넥센투데이>로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소식과 우리나라의 문화 소개

#### ● 친절한 정보, 다정한 서비스

- 온라인으로 1:1상담과 구매상담
- 넥센타이어를 취급하는 가까운 A/S 네트워크 검색 가능





# 모터스포츠,

Formula Drift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후원

## 넥센타이어와 즐기세요

넥센타이어의 2011년 모터스포츠 후원이 다채롭다. 최근 7년간 국내외 모터스포츠를 후원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온 넥센타이어가 2011년에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행보를 이어간다. 넥센타이어의 모터스포츠 후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에 'NEXEN'을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과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해외에서는 Formula Drift를 후원한다.

글 김성진  
사진 HARF, (주)슈퍼레이스

01



###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대회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2011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개막전이 지난 6월 19일, F1 경기가 펼쳐졌던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었다. 넥센타이어가 타이틀스폰서를 맡은 이 대회는 올해 7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온로드 레이싱 대회로 RV 및 SUV 레이싱 붐을 일으키며 국내 모터스포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또 대회 상위권 선수들이 주로 장착한 넥센타이어의 스포츠 타이어 N9000은 뛰어난 접지력과 고속주행 성능으로 참가 선수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RV 최고 클래스인 SGT-300을 포함한 6개 클래스와 승용차부문 3개 클래스를 합한 총 9개의 클래스가 육종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 경기에는 서포트 레이스가 추가 개최되어 선수들과 관중 모두 자유롭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넥센타이어는 RV 챔피언십으로 독특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N9000을 비롯한 넥센타이어 전 제품을 장착한 RV 차량들이 질주하는 모습이 각종 미디어에 비추어지면 브랜드와 C노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01 육중한 차체로 서킷을 질주하며 박진감을 선사하는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02 SGT-300 입상자들

올해 경기는 총 다섯 라운드로 치르며 7월 17일(2전), 8월 28일(3전), 9월 18일(4전), 10월 30일(5전)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넥센타이어는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해 모두 함께 즐기는 레이싱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Tdom팀 스폰서 체결 &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국내 대표적 자동차경주대회인 '2011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지난 4월 24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000여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전을 치렀다. 2라운드는 5월 28일, 태백 레이싱 레이싱파크에서 개최됐다. 넥센타이어는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넥센 N9000 클래스에 공식 네이밍

## 02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스폰서로 참가하여 넥센 N9000을 공급 중이다. 더불어 지난 4월, 1,600cc '넥센 N9000클래스' 경기에 참가하는 KTdom팀의 경주용 차량에 넥센타이어 N9000을 지원하는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넥센타이어의 KTdom 스폰서십은 KTdom 온라인사이트와 KTdom레이싱팀 공식 홍보물에 게재되며 티빙 슈퍼레이스 KTdom 참여차량에 넥센타이어 로고스티커와 선수용 수트 로고패치가 부착된다.

KTdom레이싱팀은 2005년에 창단해 수많은 신인 챔피언을 발굴하고, 2010년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넥센 N9000 클래스에서도 우승한 정통 레이싱팀으로 선수 겸 감독인 박시현 선수를 중심으로 정회원 선수, 탠런트 안재모 선수와 이화선 선수 등이 함께 활약하고 있다.

박시현 선수는 개막전에서 2,000cc급 슈퍼2000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경기 초반부터 뛰어난 레이싱 실력을 보였으며 정회원 선수는 N9000 클래스에서 개막전, 2라운드 모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해 다음 라운드에서 우승을 다짐하고 있다.

티빙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6월 26일(3전), 7월 17일(4전), 8~9월(5~6전), 10월 30일(7전) 총 7라운드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6라운드 경기는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에서 넥센타이어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01 Formula Drift에서  
경기를 펼치는 TEAM NEXEN

02 KTdom레이싱팀의 연예인  
카레이서 이화선 선수와 슈퍼루키  
정회원 선수가 함께한 포토타임

03 티빙 슈퍼레이스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04 KTdom레이싱팀의  
선수겸 감독 박시현 선수



넥센타이어의 국내외 모터스포츠 후원은

넥센타이어가 세계적 브랜드임과

동시에 세계 시장의 고객과 함께하는

첨단기술력을 갖춘

전문 타이어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레이싱대회 Formula Drift 후원

전 세계 드리프트 선수들이 갈망하는 Formula Drift는 올해 4월부터 10월에 걸쳐 미국 롱비치, 팜비치,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전역에서 7라운드의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올해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은 Formula Drift 1라운드는 Toyota Grand Prix의 Long Beach Street Course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2라운드는 Braselton, GA에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치러졌다. 3라운드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Palm Beach, FL에서 열렸다.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TEAM NEXEN의 Kyle Mohan 선수는 1라운드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 Team NEXEN의 모든 선수(Kyle Mohan, Taka Aono, John Russakoff, Alex Phifer, Cyrus Martinez)가 TOP 32에 자격을 얻었다. 넥센타이어의 국내외 모터스포츠 후원은 넥센타이어가 세계적 브랜드임과 동시에 세계 시장의 고객과 함께하는 첨단기술력을 갖춘 전문 타이어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예정된 대회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모터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NEXEN'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보다 친숙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㉒



# 퍼포먼스와 컴포트 드라이빙의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 부드러운 조화, CP661

넥센타이어가 신제품 CP661을 국내에 출시했다. 유가와 물가의 동반 상승에 얹어진 소비자의 지갑을 고려한 CP661은 안정성과 편의성까지 고루 갖췄다. 이미 후주의 소비자 잡지 <Choice>에서 세계적 제품들과 경쟁해 당당히 6위를 차지한 제품이기도 하다. 보다 진보된 기술력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넥센타이어의 CP661을 살펴보자.

글 박기석 상품기획팀 차장

HIGH PERFORMANCE  
**CP661**

### 실용주의자를 위한 실속형 타이어

최근 지속적인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타이어 교체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국내외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실속형 신제품 CP661을 출시했다.

넥센타이어가 일반운전자의 주행 특성과 평소 고객들이 요구해온 성능을 차량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소비자들은 시내주행을 주로하며 적은 소음과 편안한 승차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빗길 미끄러짐 등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제는 이른바 토털밸런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넥센타이어는 주행안정성과 더불어 편안한 주행성능까지 모두 고려한 신제품을 기획하게 되었다.


신제품 CP661은 국내도로와 기후조건이 유사한 해외 시장에 먼저 출시되어 그 성능을 입증한 제품이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후주의 소비자잡지 <Choice>에서 총 18개 업체의 8개 패턴을 테스트한 결과, CP661은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코너링과 제동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6위를 차지한 CP661은 잡지사가 구매를 권유하는 6개 패턴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현지 소비자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넥센타이어는 CP661을 국내 차량 조건에 맞추어 국내에 출시했다. 기존 넥센타이어의 SB 시리즈를 대체할 제품으로 High Performance 대표브랜드인 'CP' 시리즈의 최신모델이다.

###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고

CP661의 개발로 넥센타이어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토털밸런스 제품의 단점인 성능과 내구성 문제를 신기술 적용으로 해결함으로써 고민도 덜었다. 넥센타이어는 그간 고부가 프리미엄 UHP제품인 'N' 시리즈의 공격적 개발과 출시로 소비자의 호평을 받아왔고 High Performance급인 CP661도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CP661은 타이어의 마모 방지를 위해 저 발열 소재의 신개념 컴파운드를 적용하고 타이어의 노면 접지 압력 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마모에 의한 성능변화도 최소화시켰다. 이로써 퍼포먼스와 컴포트 드라이빙 성능이 부드럽게 조화된 경제적인 타이어 CP661이 탄생한 것이다.

균형감 있고 마일드한 패턴디자인과 화려한 문양이 삽입된 사이드월까지, CP661은 어떠한 차량과도 조화롭게 어울려 멋을 더한다. 넥센타이어의 야심작 CP661이 국내 시장에서 돌풍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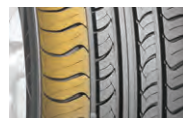


균일한 접지 압력 및 접지면을 확보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빗길에서의 제동력 극대화



화음 설계 기법 적용으로 최적의 면분할(S/M/L) 설계를 하여, 주행 시 발생하는 음의 높이와 음의 크기, 음색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주행 중에 발생하는 TIRE SOUND QUALITY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소음 설계기술을 적용

**최적의 피치 조합으로 소음 성능 향상**  
노면에 접지하는 블록의 크기를 최적화한 5랜덤 피치 설계 적용으로 소음을 분산, 감소시켜 정숙함 실현





# 생산 · 품질전문가

## 글로벌 10위권 달성의 밑거름

### 과정

2010년 11월 16일부터 6개월간 생산, 품질, 연구 직무에 종사하는 32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생산 · 품질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7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교육이었다. 생산 · 품질전문가 과정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구실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글 · 사진 조광신 인재개발팀 과정

### 전 세계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을 위해

과거 10년간 넥센타이어는 경쟁 업체가 두려워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일구어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혁신이 지속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 구도에 들어선 지금, 고객은 더욱 높은 수준의 넥센타이어를 원할 것이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본적인 생산 · 품질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세계적인 기업 대부분이 오랜 기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토요타는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기능 작업 시스템 및 적기 공급 체계를 완성했고, 토요타식 생산방식(TPS : Toyota Production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제조업에 파란을 일으켰다.

1990년대~2000년대는 전 세계 제조 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토요타의 TPS 도입에 매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덱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을 지수화하기 위해 10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했고, 계산 작업에만 3년을 매달린 결과 개발에 성공했으며, 물류 기업으로는 드물게 포춘지 '100대 기업'에 15년째 선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넥센타이어의 미래 역시 연구와 영업, 더불어 생산 · 품질의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로 유지하고 개선해야 생산 · 품질의 혁신을 노릴 수 있다. 또한 이는 조직원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좋은 인재를 만나는 방법

#### 넥센타이어 실업자 계좌제 훈련 & 청년 취업 아카데미

2010년 통계청 공식 실업률은 3.7%이다. 실제로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 잡역 비정규직을 합하면 비공식적으로 400만 명에 육박한다. 2008년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실업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가장 집중한 정책이 구직자 훈련 또는 취업 훈련 정책이다. 정부는 구직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개인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은 채용과 신입사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숙달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장점이 많은 정책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구직자 계좌제 훈련(내일배움카드교육)과 청년 취업 아카데미 두 과정을 BTC아카데미와 협력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과정 모두 넥센타이어 이름을 걸고 개설된 과정 이어서인지 시작하자마자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단연 인기가 높다.

또 현재 창녕공장을 염두에 두고 창녕 근무 가능자 우선으로 교육 입과를 유도하는 상황이라 창녕공장의 초기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던 넥센타이어. 2011년 또한 국가 경제와 실업을 해소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생산 · 품질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과제

- 설비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
- 표준화로 대표되는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 제품 불량 최소화를 위한 공정감사와 품질검사 체계 개선
- 공정 낭비 최소화를 위한 통계적인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 근로자의 업무 성과 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


"기업 교육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성과 창출을 위한 최고의 과제 해결 방법이다."

(이찬 서울대학교 산업교육학 교수)

넥센타이어 인재개발팀은 생산과 품질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해결 과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평가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으며 이미 그 성과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아직 멈출 순 없다.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첨단 시스템의 창녕공장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 공정관리 체계의 현장 접목이 시급하다. 생산 · 품질 혁신은 창녕공장의 초기 안정화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처럼 비전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넥센타이어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꾸준히 살피고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생산 · 품질전문가 과정은 과제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의 스타트로 볼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회사 성장에 걸맞는 인재상의 실현 및 조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 리더십 교육과 미래 성장의 동력인 연구개발 역량 강화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 도전, 무재해 좋아!

넥센타이어 무재해 2배수 달성

##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을 향해

넥센타이어가 무재해를 향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4월 19일 무재해 1배수 달성에 이어 5월 24일에는 무재해 2배수 달성에 연이어 성공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양산 본사 교육실에서 무재해 2배수 달성과 관련한 인증서 수여 및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식을 치르는 등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 사진 박수현 인사팀



###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바람 현장

무재해란 무재해 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이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무재해 1배수란 업종과 규모별로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2010년 기준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근로자가 2,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00만 시간이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 11월 2일부터 2011년 4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재해 1배수 300만 시간을 달성했다. 2011년부터 무재해 운동 시행규칙이 변경되고 2배의 목표시간이 60만 시간으로 바뀌면서 2011년 5월 24일에는 무재해 2배수인 360만 시간 달성에도 성공했다.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이룬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재해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의미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산재보험료의 절감 효과가 있으나 이는 무재해 사업장에 주어지는 부가적인 효과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산재재해자가 없는 작업장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와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 노사 화합 유지로 신바람 나는 작업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 5배수, 10배수를 향해 도전!

안전환경팀은 무재해 운동에 참여하며 2011년 목표슬로건을 “도전, 무재해 좋아!”로 정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동참으로 이끌어가는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달성을 목표로 안전, 보건, 소방, 환경 총 4개 분야에서 무재해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안전 부분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정착해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유소견자 개인 건강데이터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시설 관리강화 및 추가보완으로 대형 화재 발생확률을 줄이고 초기 화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환경 시설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무재해·무사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학교, 맞춤형 스트레칭 교육, 비만클리닉, 합동소방훈련, 환경정화운동 등이 무재해 운동의 실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넥센타이어는 무재해 1배수와 2배수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고 꾸준한 달성을 위해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특이사항이라면 과거에는 재해예방활동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이번 재해예방활동은 근로자의 의식전환에 포인트를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고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다 쉽게 무재해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재해 운동이 일시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전사적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안전환경팀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무재해 1배수라는 첫걸음에서 무재해 2배수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딘 넥센타이어. 이번 무재해 달성을 시작으로 무재해 5배수, 10배수를 넘어 타이어 공장 중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㉞



01 지난 4월 19일과 5월 24일에 연이어 무재해 1배수와 2배수를 달성

02 사고를 방지하는 스트레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03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상황을 대비한 소방훈련 실시

04 수시로 설비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환경팀원들

05 안전학교 캠페인을 벌이는 양산공장 사우들



## 우리에게 실패란

끈기 있는 혁신 선두 금형관리파트

## 성공을 위한 구름판

넥센타이어의 TPM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생산 증대나 품질 향상처럼 직접적인 과정에서도 일어나지만 금형관리파트처럼 보다 간접적인 과정에서도 TPM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형관리파트는 타이어의 품질과 직결되는 파트로 최근 TPM 실적이 좋다.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 서 꾸준한 지원사격을 해주는 금형관리파트. 그들의 TPM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명호

# Best TPM

### TPM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TPM의 시작은 어느 부서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금형관리파트는 유난했다. 가류작업을 위한 금형을 관리하고 교체하는 금형관리파트. 마땅한 작업 공간이 없어 1공장 완제품 타이어 분류장을 나누어 쓰다 보니 좁은 것은 물론이고 금형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금형이 현장 이곳저곳에 쌓였고 위치 파악이 힘들어 알맞은 것을 찾는 데만 두세 시간이나 걸리곤 했다. 게다가 작업 주문은 많은데 설비에는 한계가 있어 작업하는 파트원들의 피로가 쌓여만 갔다. 처음 TPM을 제안했을 때 부정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현장에 일이 많은데 무언가를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중 희소식이 전해졌다. 금형 자동화 창고가 들어선 것이다. 금형 자동화 창고가 건설되고 이사로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니 금형을 찾거나 관리하기도 쉬워졌다. 파트원들의 얼굴에서도 활기가 느껴졌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금형관리파트 송윤오 파트장은 이 과정을 겪으며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깨달았다고 했다.

"파트원들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품질이나 생산성, 안전성도 모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공간과 금형 자동화 창고 등 외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송윤오 파트장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자 파트원의 부모님 혹은 아내, 여자친구 생일이면 꽃다발을 보내는 등 더욱 섬세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다.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은 가족들은 매우 행복해했고 파트원들도 좋아했다. 어느덧 불만 어린 목소리는 열심히 해보자는 파이팅으로 바뀌었다고. 또한 더 나은 상태로의 개선, TPM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 2010년에는 TOP진단에서 여섯 번이나 수상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 가장 무서운 적은 고정관념이다

송윤오 파트장은 TPM 활동의 가장 무서운 적이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량이라며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불량은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만 된다면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원인 파악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금형을 끼우는 컨테이너의 마모 방지를 위해 바르는 고온 극압 그리스의 개발이 첫 번째였다. 기존에 수입 제품은 가격도 비싸고 주기도 짧았으며 찌꺼기도 많았다. 그래서 국내업체와 함께 넥센타이어의 작업 환경에 맞는 그리스 개발에 돌입, 드디어 지난해 성공의 결실을 맺었다. 작년 5월부터는 직접 개발한 그리스로 작업을 시작해 원가 절감과 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냉각기도 직접 제작했다. 알루미늄의 열팽창률이 높아 금형을 교체하면 자연냉각에 3~4시간이 고스란히 소요됐다. 팀원들은 컨테이너에 찬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공기를 주입해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머리를 모아 냉각기를 개발해냈다. 냉각기를 사용하니 걸리는 시간은 단 20분, 무려 1억 8,000만 원가량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금형관리파트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고온 극압 그리스

### 아직은 겨우 걸음마 단계일 뿐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정도죠. 앞으로도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TPM에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TPM 활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겠지요."

송 파트장은 금형관리파트의 TPM을 이제 시작이라 말한다. 지금처럼 나아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금형관리파트의 10대 불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Oppm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실제로 TPM 활동을 통해서 불량률 Oppm을 달성하고 있는 항목 등 2011년 전체 불량률이 목표 대비 219.7%나 초과 달성 중이다. 또한 공정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금형 청소법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긍정적 분위기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송윤오 파트장. 금형관리파트 팀원들과 함께라면 그가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는 것 같다. 그의 꿈이 현실로 자리 잡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㉞



# 이동 수단에서

매혹적인 두 바퀴 탈것, 자전거

## 다시 여가수단으로

환경의 시대를 맞아 날로 몸값이 올라가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자전거가 도심에서 자동차를 대신할 탈것으로 기대한다. 어쨌거나 기계적인 수송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처음으로 맛보게 한 것이 자전거이고 이 자전거 생산 기술 덕분에 자동차도 탄생할 수 있었다. 자전거의 역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자전거가 출현한 역사부터가 그렇다.

글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처음부터 수송용이 아닌 일종의 놀이 기구로 발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자전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독일의 한 귀족이었다. 칼 폰 드레이(Karl Von Drais)라는 이름을 가진 남작이 1817년에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전거의 선조였다. 이 기구는 남작의 이름을 따서 드레이진(Draisine)이라 불렸다. 드레이진은 나무로 만든 바퀴 두 개를 단단한 막대에 고정하고 앞쪽 바퀴 부분에 조종 손잡이를, 막대 위에 안장을 놓아 걸터앉을 수 있도록 한 단순한 형태였다. 드레이 남작이 이 기구를 발명할 당시, 왕실이나 부유한 귀족들은 대개 널찍하고 잘 꾸며진 정원 산책을 즐기곤 했다. 드레이 남작은 넓디넓은 왕실 정원을 산책하면서 발로 산책하는 대신 바퀴를 이용해 가로지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엉덩이를 안장에 걸치고 가는 방향으로 조종간을 향하고는 발로 땅을 힘차게 치면, 바퀴는 한동안 앞으로 굴러 건기보다는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드레이진은 어느새 귀족들의 새로운 정원 산책용 놀이 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드레이진의 인기는 이내 사라졌다. 돌이 박힌 울퉁불퉁한 산책로를 페달도 없는 드레이진으로 돌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 자전거, 도시의 여가 수단이 되다

드레이진을 개선해 도시의 여가 수단으로 변형시킨 사람은 프랑스인 피에르 미쇼였다. 미쇼는 프랑스로 전파된 드레이진의 바퀴를 계속 구르게 할 방법을 찾던 끝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달 장치를 고안해냈다. 페달은 획기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양쪽 발이 땅에서 모두 떨어지면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식을 거부한 미쇼는 마침내 자신의 페달 개발에 성공했고, 사람들은 페달로 바퀴가 빠르게 구르자 드레이진 위에서 균형 잡는 일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미쇼의 페달 드레이진은 빠른 속도로 벨로시피드(빠른 발)라 불리며 자전거 이용자를 늘려 갔다.

그러나 미쇼의 벨로시피드는 드레이진에 비해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철 바퀴가 달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괴롭혔다. 이 때문에 벨로시피드는 털털이 자전거로 불리기도 했다. 이 털털이 자전거는 이 무렵 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보급된 롤러스케이트와 함께 실내 스포츠 놀이 기구로 애용되기 시작했다.

털털이 자전거가 등장한 것은 1860년대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이 현재의 도시 모습을

“

안전 자전거가 나오면서 여성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다.

도시 교외의 한적한 길에 남녀가 나란히 비슷한 바지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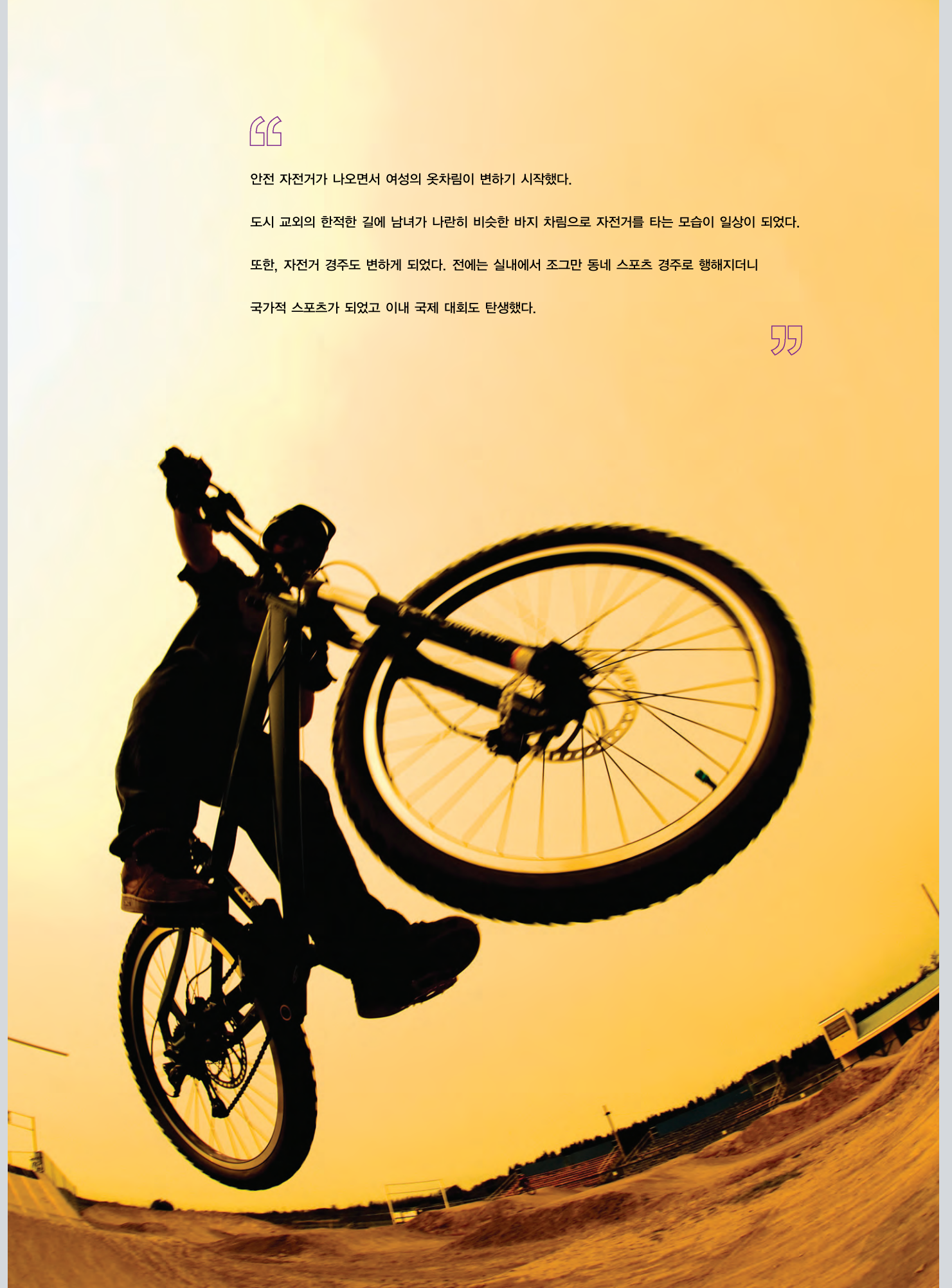
또한, 자전거 경주도 변하게 되었다. 전에는 실내에서 조그만 동네 스포츠 경주로 행해지더니

국가적 스포츠가 되었고 이내 국제 대회도 탄생했다.

”



최초의 자전거  
드레이진







속도 경쟁이 만들어낸  
높은 바퀴 자전거

갖추기 시작하던 때였다. 도시에는 기차역이 하나 둘 생겨나고, 시내 중심에는 백화점이 들어섰으며 귀족들 대신에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 이들을 도우는 변호사, 은행가, 행정가들이 도시민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 생겨난 실내 체육관에 가서는 브레이크가 아직 달리지 않은 톨털이 자전거로 경주를 즐기곤 했다. 톨털이 자전거 경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럽 전역으로 뻗어 갔는데,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최고였다. 경주가 인기를 끌자 자전거 기술자들은 스포츠 기구로서 자전거 속도를 높이는 데 열중하게 된다.

### 높은 바퀴 자전거에서 안전 자전거로

톨털이 자전거 구입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제작자들도 늘어났다. 이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자전거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노력했는데 자전거 제작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속도였다. 이런 경쟁은 마침내 1870년 높은 바퀴(High Wheel) 자전거의 출현을 낳았다. 이 자전거는 톨털이 자전거와는 겉모양에서부터 크게 달랐다. 이전에는 두 개의 바퀴가 동일한 크기였으나 이 자전거는 유난히 큰 앞바퀴를 가졌으며 페달을 밟으려면 운전자가 앞 바퀴통에 앉아야만 했다. 앞바퀴를 키운 이유는 바퀴가 클수록 한 번에 굴러가는 거리가 멀고 자연히 속도가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바퀴가 커지니 자전거 무게가 늘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뒷바퀴는 역으로 작게 만들어버렸다. 이 높은 바퀴의 자전거가 지금의 자전거(영어로 바이시클-두 개의 바퀴라는 뜻)라는 이름의 시초이기도 하다. 속도는 높고 무게는 가벼워진 높은 자전거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자전거는 영국으로부터 유럽, 그리고 이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자전거 대중화의 속도를 높였다. 특히 자전거 경주에 몰두해 있던 젊은 직장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6개월 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었지만 높은 안장 위에서 속도를 즐기는 기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점점 높아지는 앞바퀴로 자전거타기가 거의 곡예에 가까워졌으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젊은 남성들은 더욱 이 자전거를 선호했다. 지름 1.5미터의 바퀴에 타는 것 자체가 남성의 용감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자전거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일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사무직으로 진출한 여성도 자전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높은 바퀴 자전거는 의지만으로 탈 수 없었다. 치렁치렁한 치마와 몸을 꼭 죄는 속옷은 높은 바퀴 위로 올라가려는 여성의 뒷덜미를 잡았고, 설사 올라간다 해도 바퀴를 굴리기엔 위험천만해 보였다. 이런 여성 소비자들을 위해 자전거 제작자들은 옷차림에 맞는 '어른용 세발자전거'를 내놓았지만 여성에게 뭔가 남성에 비해 모자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이내 외면당했다. 여성 중에는 아예 치마를 벗어버리고 높은 자전거에 도전하기도 했으나 자전거 클럽 회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높은 바퀴 자전거는 남성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자전거 제작자들이 다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높은 바퀴 자전거처럼 빠르게 굴러떨어질 위험도 없는, 즉 속도를 즐기는 남성이나 자전거를 타고 싶은 여성 모두를 만족하게 할 자전거 개발에 나선 것이다. 제작자들은 마침내 앞바퀴 크기를 줄이고 뒷바퀴를 키우고 무게 중심을 낮춰 굴러 떨어지지 않는 설계에, 톱니바퀴와 체인을 결합하여 페달을 덜 밟아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자전거를 고안해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자전거를 높은 바퀴 자전거와 대비된다는 의미로 '안전 자전거'라 불렀다. 1886년 영국에서 최초의 안전 자전거로 '로버(Rover) 자전거'가 제작되었다. 체인이 달리고 안장은 두 바퀴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안장 바로 아래에 페달이 있는 로버 자전거는 현재 자전거의 가장 가까운 선조가 되었다. 이 자전거에는 쇠바퀴 대신에 존 보이드 던롭이 개발한 공기 타이어가 달렸으며 동시에 엉덩이의 아픔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자전거 경주 대회에서 높은 바퀴 자전거를 너끈하게 물리쳐 남성들로부터도 신망을 얻게 되었다.



###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부상과 쇠퇴

안전 자전거가 나오면서 여성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다. 도시 교외의 한적한 길에 남녀가 나란히 비슷한 바지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자전거 경주도 변하게 되었다. 전에는 실내에서 조그만 동네 스포츠 경주로 행해지더니 국가적 스포츠가 되었고 이내 국제 대회도 탄생했다. 190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투르 드 프랑스' 경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안전 자전거의 발달이 자전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이제 취미나 스포츠 기구가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전 자전거가 나올 무렵만 해도 사람들은 탈것 하면, 기차나 마차 혹은 증기차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안전 자전거를 생산하는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해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반 공장이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도심에서는 마차나 승합차와 나란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자전거가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자전거 길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줄 것을 건의했고 1897년에 미국에서는 15km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고 말았다. 도시에 승합차를 대신해 전차가 등장하면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날랐고 자전거는 전차가 고장 나가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에만 대체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노동자들은 주말에 교외 소풍을 나갈 때 자전거를 사용했고 집배원, 신문배달부, 경찰서 등에서 말 대신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890년대 말부터 미국 뉴욕시 등 주요 도시의 경찰서에서는 말 대신에 자전거를 도입해 순찰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순찰 경관을 "바퀴 경관"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자전거는 서서히 말을 대신하는 탈것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다.

강력한 경쟁자인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자전거는 도시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동차가 대량생산되어 값싼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자유로운 이동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탈것으로 자리 잡으며 자전거 도로도 하나 둘 사라졌다. 도로법 역시 자전거에 불리하게 제정되었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점차 자동차에 더 유리한 공간이 되었다. 결국 1970년대까지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등 다시 여가 스포츠용품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㉓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동차 첨단기술의 현주소

## Smart Car

단순하게 길안내에 머물렀던 차 안의 네비게이션은 막히는 길을 피하고 소통이 원활한 곳을 찾는 것은 기본, 이제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 배고파(I'm hungry)”를 외치면 재빨리 주변 레스토랑을 검색해 화면에 비추는 기능으로까지 진보했다. 사고 일어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진보하고 있는 자동차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글 김준형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전기전자기술의 발달이 자동차 기술의 진보를 이끈다. 다양한 첨단 장비가 자동차로 스며들면서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전자장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장비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빠른 이동수단으로써의 자동차를 위해 다양한 안전장비, 넉넉한 편의장비로 거듭난다. 나아가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과 결합하고 진화하면서 더욱 편리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기본, 만일의 사고 때에는 운전자의 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 ■ 상상 그 이상, 하늘을 나는 자동차

SF 영화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현실로 다가온다. 테라푸기어(Terrafugia, 라틴어로 지상 탈출을 뜻함)라는 이름의 미국 회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트랜지션(Transition)'을 개발했다. 밴 크기의 자동차는 30초 만에 비행기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휘발유)를 가득 채우면 724km를 날 수 있다. 가격은 약 2억 3,000만~2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gt;&gt;&gt;

#### 주차도 알아서 척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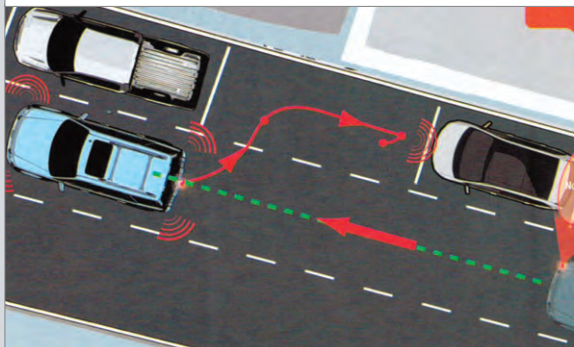
##### 폭스바겐 SPAS(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폭스바겐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SPAS(Smart Parking Assist System)이다. 횡렬 주차 때 유용한 장비로 주차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에게 유용하다.

먼저 SPAS 구성장비는 크게 전동식 스티어링 휠과 주차센서로 구분된다. 먼저 일렬로 늘어선 자동차 사이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스마트 파킹 버튼을 누른다. 차는 숨 가쁘게 노면에 주차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는다.

적절한 공간이 나타나면 차는 신호음을 통해 '주차가능'을 알린다. 전진과 후진 기어를 넣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다. 물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도 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 차는 그저 적절하게 스티어링 휠만 스스로 알아서 돌린다.

폭스바겐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차 역시 최근 같은 장비를 투싼x와 아반떼 등에 장착해 관심을 모았다. 깔끔한 주차실력도 일품이다.



&gt;&gt;&gt;

#### 두 손과 두 발 모두 떼고 달린다

##### 현대차 ASCC(액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자동차는 일련의 조건만 맞으면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떼고 달릴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미 개발을 마쳤고 시험운행까지 치렀다. 일부 도로교통법과 보험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양산차에 접목할 수 있다.

최근 현대차에 기존 크루즈 컨트롤에서 진일보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개발해 양산차에 접목, 시험 운행까지 마쳤다. 레인 디파처 시스템으로 차선을 감지하고 차의 좌우 방향을 결정한 후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속 주행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접목하면 앞차를 따라 꾸준히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 올라 적당한 속도로 달리는 전방 진행차를 물색한다면 그 차를 쫓아 차 스스로 부산까지도 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종영한 TV드라마 '도망자 플랜B'의 마지막장면에 이 같은 기능이 소개돼 큰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 ■ “119죠? 우리 주인님 차에 에어백이 터졌어요!”

늦은 저녁, 가로등 하나 없는 인적 없는 산길을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졌다. 인적도 없었고 주변을 달리던 자동차도 물론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끔찍한 사고는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 상황이다.

그러나 잠시 후 구급차를 비롯해 사고를 수습할 119 구조대가 즉각 달려와 운전자를 구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누구나 나 119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모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운전자를 구하고 사고수습을 시작한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 안에 달린 텔레매틱스(Telematics) 덕이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자동차 영업소에 달려가 차를 계약할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다.

전자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IT 기술이 자동차 산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개발과 생산은 물론 판매까지 IT의 효율성을 도입해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가운데 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기술이 텔레매틱스다.

텔레매틱스란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을 상태와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교통과 생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긴급구난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990년대 미국 GM이 모토롤라와 손잡고 개발한 '온스타(On-Star)' 시스템이 최초다. 운전자와 텔레매틱스 본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 운전의 효율성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국내 역시 자동차 회사와 통신사가 제휴해 다양한 텔레매틱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한국GM(당시 대우차)이 '드림넷'을 통해 처음으로 텔레매틱스를 국내에 선보였다. 운전자가 주행하는 동안 주변의 주유소와 맛집 또는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미국 포드의 텔레매틱스 싱크(Sync)는 운전중 '배고파'라는 한 마디를 명령하면 주변 레스토랑을 발빠르게 검색해 내비게이션에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양산화하고 있다.



&gt;&gt;&gt;



#### 차에 오르는 순간 전투기 파일럿

##### BMW HUD(헤드 업 디스플레이)

BMW가 전투기 기술에서 착안한 HUD(Head Up Display)는 운전자의 시야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목적을 지녔다. 시동을 켜고 전방을 바라보면 운전석 바로 앞 유리에 네비게이션 화살표와 속도계, 회전수 게이지 등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비춘다. 운전자가 주행 중 시야를 계기판으로 옮기는 짧은 시간마저 줄이겠다는 BMW의 배려다. BMW가 양산을 시작했고 최근 현대 모비스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에 적합한 HUD를 개발 완료해 곧 양산모델에 접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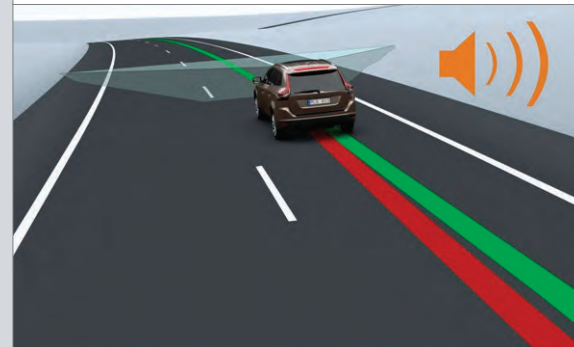
&gt;&gt;&gt;

#### 주인님, 출지 마세요!

##### 메르세데스 벤츠 Lane Departure Assist (레인 디파처 어시스트)

자동차의 발달은 도로의 발달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하다. 도로가 반듯해지고 높낮이가 줄어들수록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한 계속도는 상승한다. 그러나 도로의 발달은 자칫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코너와 코너가 반복되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이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시작했을 때 차 스스로 이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일깨워주는 장비가 Lane Departure Assist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를 깨운다. 때로는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줘 운전자를 깨우기도 한다.

차선을 감지하는 센서는 룸미러 뒤 또는 차량 범퍼 아래쪽에 달린다. 주행 중 양쪽 차선을 감지하고 차의 진행방향을 가능한다. 보다 진보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차선을 넘어갔을 때 차 스스로 핸들을 돌려 차가 차선 안쪽으로 되돌아오도록 보조해 주는 장비도 최근 개발을 마쳤다.





# 자연에서

배우다

놀다

만나다

맛보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다

대나무

여과의 늘푸른잎은인 큰키나무, Phyllostachys

어엿이 대나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몇 십 년을 사니 나무 같다가도, 해마다 잔가지가 나고 나이테도 없어 나무가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고 여러해살이풀처럼 뿌리로 동면을 하지도 않고요. 결국 풀도 나무도 아닌 그냥 대나무라네요. 그래서 건축이나 가구재로 쓰일 때도 목재라 부르지 않고 죽재라고 구분지어 부른답니다. 푸르고 곧아 절개와 기상의 상징이 된 대나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존재감이 그 곧은 모습과 꼭 닮은 것만 같습니다.

타이어테크 부평점

# 시간을 공정하라

글 안성은  
사진 이맹호

대기업 서비스센터의 방문기사로 시작해 센터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10년, 신직수 대표는 그간의 성공을 뒤로한 채 타이어로 제2의 인생을 펼쳤다. 세상의 무수한 업종 중에서 타이어를 선택한 것은 그의 눈에도 넥센타이어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자동자정비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사, 중고자동차성능평가사를 취득하고 2009년 7월, 전방 10km 내에 20여 개의 타이어매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이 뜨거운 이 지역에서 신 대표가 선택한 성공 키워드는 고객 감동 서비스였다. 대기업 서비스 부문에서 10년을 일했으니 CS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이러한 자신만의 방식은 동종 업체가 밀집해 있더라도 유효하리라 생각했다. 타이어 교체 시 엔진 청소, 워셔액 보충, 실내살균 클리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이 다녀간 다음 날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였다. 그러기를 수개월, 고객 서비스에 승부수를 던진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교체주기가 길어 단골 개념이 미약한 타이어 업계임에도 오픈 2년을 채우기도 전에 2011 넥센타이어 연도상대회에서 타이어 판매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신 대표는 무엇을 하든 의심하는 법이 없다.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기우는 집어던지고 오로지 생각대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을 가진다.

다섯 명의 직원들 역시 매사 긍정적인 자세로 늘 '꿈을 꾸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열어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도록 독려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원 가족까지 함께하는 회식 자리를 마련한다. 직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한 단계 높은 고객 감동 서비스로 고객에게 되돌아간다. 씩씩하고 신나게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인터뷰 중에도 '우리 직원들 좀 보라'며 자랑을 펼쳐놓는 신 대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그의 능력은 사업적 수완이 아니라 무한긍정의 심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⑩







소와 구더기에

빛 진

현대 의학

## 곰보자국이 사라진 이유

‘타미플루’라는 약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구하려 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에이형 독감으로 부르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 약을 엄청나게 사들였다. 여러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매우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먹는 유행성 독감 치료제로는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타미플루는 사실 중국의 한 자생식물에서 추출됐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학은 새로운 약을 화학적으로 합성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자연에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연 현상을 관찰해 예방백신을 만들거나, 아예 거머리 같은 동물을 치료에 이용하기도 한다.

| 글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 중국에서 자생하는 팔각회양 추출약품 타미플루

‘대한민국 국민 20% 즉 1,0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타미플루를 포함해 항인플루엔자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 2009년에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 떨어진 사명이다. 이 때문에 삼척동자도 타미플루라는 약의 이름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타미플루는 우리말로 팔각회양, 영어로는 스타 아니스라는 나무에서 추출한다. 예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요리에 사용했는데, 요리 본연의 향이 아닌 다른 냄새를 제거하려 썼다고 한다. 일부 한의서에서는 이 팔각회양이 몇몇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다고 적혀 있기도 하니, 예전부터 쓸 모가 많은 나무였음은 틀림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쓰임새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타미플루의 원료를 추출하게 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렇다면 이 팔각회양을 직접 먹으면 어떨까?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이 나무가 품귀 현상을 겪을 정도라고 한다. 차로 끓여 먹으면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 나무에서 타미플루의 원료를 추출해 농축하고 화학 처리를 해야 약이 만들어지므로, 이 나무 자체를 먹는다고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서양의학자들의 중론이었다.

타미플루와 관련해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일은 이 약이 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서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침, 고열 등 관련 증상은 일반 감기와 구별이 어려운데, 이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만성호흡기질환자나 만성심장질환자 등에게는 이 약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청소년의 경우 이 약을 먹은 뒤 자살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 자연에서 배우다



우두라는 말은 소의 천연두를 일컫는 말이고,  
이 우두에 걸린 소와 접촉을 하면 마치 인두에  
걸린 사람들의 고름을 접촉한 것처럼  
혹 천연두가 예방되지 않을까 착안한 것이다.  
최초의 시험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8살 소년이 받았고 다행히 성공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우두법이  
최초의 예방접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소젖 짜는 데에서 착안한 최초의 예방백신 우두법

천연두는 지금은 지구에서 사라진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몇몇 연구소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바이러스와 예방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질병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도 나이 많은 노인 가운데 일부는 이 천연두를 어릴 적에 앓아, 얼굴에 이른바 ‘곰보자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이 곰보자국을 가진 사람들은 다행이다. 사망하지 않고 회복된 뒤 남은 상처이기 때문이다. 천연두는 20세기에만 해도 세계적으로 3억 명 가량을 숨지게 한 감염병으로, 한창 때에는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감염병과는 그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우두법이나 종두법과 같은 예방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 말에 근절 선언이 나왔다.

우두법은 사실 우연히 발견됐다. 우두법 이전에도 중국이나 인도, 터키 등에서 인두법, 즉 천연두에 걸린 이들에게서 고름 등을 빼내 이를 사용해 면역을 얻은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천연두 감염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우두법을 발견한 에드워드 제너는 소의 젖을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우두법을 착안했다. 우두라는 말은 소의 천연두를 일컫는 말이고, 이 우두에 걸린 소와 접촉을 하면 마치 인두에 걸린 사람들의 고름을 접촉한 것처럼 혹 천연두가 예방되지 않을까 착안한 것이다.

최초의 시험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8살 소년이 받았고 다행히 성공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우두법이 최초의 예방접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예방접종, 영어로는 백신이라 부르는 이 말도 소에서 유래했다. 소는 라틴어로 바카(vacca)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백신(vaccine)이 나온 것이다. 최초의 예방백신 역시 자연의 관찰로부터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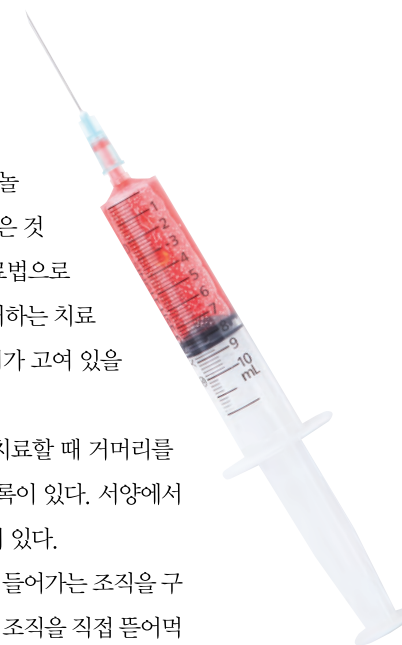
### 미국 식약청도 인정한 거머리, 구더기 치료

거머리나 구더기가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이 아니고 서양의학 치료에서 사용된다면 놀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배우인 데미 무어도 거머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돼 이를 접합한 뒤 거머리를 이용해 고인 피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은 한 배우의 사연도 유명하다. 거머리를 이용하는 원리는 어떤 수술을 받은 뒤 피가 고여 있을 때나 종기 등의 상처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제거하는 것이다.

사실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의 역사는 길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 광해군의 종창을 치료할 때 거머리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세종의 아들 문종도 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서양에서도 나폴레옹이 자신의 치핵을 치료하면서 거머리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편지에 쓴 적이 있다.

거머리와 비슷하게 혐오스럽게 여기는 구더기 역시 치료에 이용된다. 상처를 입어 썩어 들어가는 조직을 구더기가 먹이로 먹어 제거하는 것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더기가 조직을 직접 뜯어먹는 것은 아니고 소화효소를 분비해 썩은 조직을 녹여서 이를 흡수하는 것이다. 구더기를 쓰는 이유는 썩어가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나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고통도 거의 없으며, 썩은 조직도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더기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세균의 번식도 막는 구실을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의료진이 당뇨성 족부궤양과 화상, 병원성 세균 감염 등의 치료에 구더기를 이용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처에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고 상처가 더 빨리 아무는 것으로 나왔다. 구더기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해를 입히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분비해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더기 치료법 역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쓰였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식약청이 인정한 치료법이기도 하다. ⑩

사실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의 역사는  
길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 광해군의 종창을 치료할 때  
거머리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나폴레옹이  
자신의 치핵을 치료하면서 거머리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편지에 쓴 적이 있다.





# 자연에서 놀다



## 생이가래로 눈싸움하고 장대거룻배로 습지 누비는

창녕 우포

원서늘 체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곤 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이 마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하지 못하면 인류의 삶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을 가르치고 느끼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남 창녕에 가면 무려 1억 4,000만 살의 우포늪이라는 스승이 아이들을 너를 품에 안고 가르친다.

글 허은영  
사진 이용관

### 동식물 1,500여 종 살아가는 생태투어의 보고

우포늪과 순천만, 사막의 오아시스,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갯벌의 공통점은 모두 습지(늪)이라는 것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축축하게 물이 고인 땅인데, 단순히 물만 고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를 조절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늪은 물도 물도 아닌 중간지대이지만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 곤충 등 생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소이다. 늪이 있어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습지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한다. 늪에 사는 창포나 생이가래 같은 식물은 물을 깨끗하게 거르고, 비가 오면 뿔이 스펀지가 되어 물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 인간의 삶을 보호한다. 한때 늪의 소중함에 무지해 농사지를 땅으로 개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하는 귀중한 생명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요즘에는 특히 늪이 아이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되며 사람들의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포늪은 어찌 보면 창녕이란 도시보다 더 잘 알려졌다. 우포늪은 그 크기가 2.3㎢에 달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하다. 우포늪에 집을 지은 동식물도 1,500여 종에 달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협약인 람사르 협회에 등록돼 보호되고 있다. 현재 추정하는 우포늪의 나이는 약 1억 4,000만 살로 생명과 자연에 관해 배우기 이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

특히 여름의 우포늪은 일 년 중 가장 아름답고도 풍성한 계절이다. 파란 용단처럼 수면을 뒤덮는 생이가래와 마름, 자라풀, 개구리밥은 사진가들에게 사랑받는 피사체고, 해오라기, 백로, 쇠물닭 등 여름 철새가 날아와 늪에 동지를 트는 보금자리다.





## 늪에서 신나게 노는 법, 가시연꽃체험마을

전국에 수많은 체험마을이 있지만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우포가시연꽃마을처럼 독특한 체험처리를 제공하는 곳은 흔치 않다. 이름 하여 원시늪체험. 가시연꽃마을은 우포늪에서도 사지포라 불리는 동쪽지역 늪 언저리에 있는데 늪과 바로 접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우포가시연꽃마을은 우포늪의 여러 가지 모습을 관찰하고 체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크게 늪체험과 원시체험, 농촌체험, 민속체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늪체험이다. 주민들이 늪에서 이동할 때 쓰는 장대거룻배타기, 전통 낚시 도구인 가래로 물고기 잡기, 황토벽돌 만들기, 갈대잎배 만들기, 역새 화살 날리기, 곤충관찰 등 아무런 장난감이 없이도 늪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다. 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늪의 놀이 중 하나는 한여름이면 늪의 표면을 파랗게 덮는 부엽식물 생이가래로 초록눈 싸움을 하는 것. 생이가래를 꼭꼭 쥐면 마치 눈처럼 뭉쳐지는데 아이들은 온몸이 다 젖는 것도 상관없이 한여름의 눈싸움을 즐긴다.

그 외에도 늪에서 나는 부엽식물의 열매인 말밤을 이용한 공예, 창녕의 특산물인 양파를 활용한 먹거리체험, 늪에 자생하는 창포로 머리 감기, 약초로 효소 만들기, 천연 염색, 미꾸라지와 우렁이 잡기, 흙담 쌓기 등 자연과 어우러진 콘텐츠가 가득하다. 이렇게 늪에 풍덩 빠져 늪해설사의 지도에 따라 놀다보면 어느새 늪을 구성하는 수많은 생명의 존재와 관계를 저절로 익히게 된다.

### ★ 우포늪 옆 산토끼 초등학교

우포 주변에는 동요 "산토끼"로 유명한 이방초등학교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일래 선생이 빨리 해방이 되어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토끼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면 누구나 알만한 노래지만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 노래 덕분에 학생 수가 적음에도 이방초등학교는 폐교를 면했다고 한다. 이일래 선생 기념관과 기념비, 산토끼 노래비, 토끼상, 토끼장, 토끼벽화 등 학교 전체가 산토끼 천국이다.



02

### ★★ 우포가시연꽃마을 안내

- **찾아가는 길** :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녕(C) → 창녕 시내에서 1080번 지방도 우포늪 방면 → 약 6km 직진하면 신당리 마을(우포가시연꽃마을)
- **네비게이션 주소** :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563-10번지
- **홈페이지** : woopo.go2vil.org
- **전화번호** : 011-545-8992 (체험도우미 홍정희)



03

04

가시연꽃마을 체험도우미 홍정희 씨는 가시연꽃마을엔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한 시인, 습지해설가, 예술인 등 인재가 많아 재밌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또,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받아 현대적 시설의 펜션도 잘 꾸며져 있다. 4인 가족이 하룻밤 묵는 데 약 5만 원이면 충분하다.

### 걷거나 자전거로 우포늪 탐험

마을에서 놀고, 먹고, 쉬었다면 이제 지역을 더 확장해보자. 앞서 말한 대로 우포늪은 네 개의 면에 걸쳐 있을 만큼 넓다. 우포늪이라 총칭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제방을 경계로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이라 구분한다. 위치에 따라 풍경과 식생이 다르므로 각각의 개성을 따져보는 것도 재미다. 예를 들면 우포는 소를 닮은 산과 접해, 마치 소가 마시는 물웅덩이 같다하여 소벌이나 우포로 불렸고, 둘레에 나무가 많았던 목포늪은 나무벌, 가시연꽃마을이 접한 사지벌은 모래가 많아 모래벌, 가장 작은 서쪽 늪은 쪽지벌이다.

우포를 둘러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 목포제방, 주매제방을 넘어 목포와 우포, 사지포를 걸어서 돌아도 좋고, 남쪽 생태전시관에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자전거로 관찰로를 달릴 수도 있다. 우포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새벽 물안개가 펄 무렵과 해질녘 장대거룻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할 무렵을 손꼽는다.

우포늪의 역사와 식생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생태전시관도 둘러볼 만하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만질 수 있는 시설도 풍부해 흥미롭게 우포늪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3D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전래동화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다. ㉞

01 장대거룻배를 타고 사지포를 탐험하는 아이들

02 말밤 열매를 이용한 공예

03 04 우포늪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는 생태관

05 사지포에 지천으로 나는 천연 창포를 이용한 머리감기

06 천연염색, 나물캐기 등 어른들을 위한 놀이도 가득



05

06



01



## 나와 당신 그리고 자연을 위한 디자인

뜻밖에도 그녀의 궁극적인 꿈은 '행복'이었다. 삶에서나 디자인에서나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 돈을 벌려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에 더 이상 규모를 키우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그녀는, 규모가 커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 단언한다. 그리고 그 행복의 영역에 자연도 함께 해야 한다고 믿는다.



3년 전 어느 문구점에서 노트 한 권과 노트를 끼워 겹표지처럼 쓰는 종이파일을 샀다. 노트는 붉은색, 파일은 고동색이었다. 3년이 흐른 지금, 너무 아까워 차마 쓰지 못한 노트는 여전히 붉은색, 파일은 손때 묻은 얼룩덜룩한 고동색이다. 더구나 파일 네 귀퉁이는 너털너털해져 테이프를 둘렀고 거칠게 일어난 종이 겹은 마치 나무의 수피를 만지는 느낌이다. 지난봄, 이른 비를 맞은 이후엔 묘한 묵은 내까지 풍긴다. 그럼에도 취재노트를 넣고 다니는 탓에 하루라도 손길이 닿지 않을 때가 없다.

놀라운 것은, 언제부턴가 이 종이파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매력 있다'며 감탄하는 신비의 파일이 되었다는 것. 특히 '손'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인터뷰이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 어느 메이크업아티스트는 '탐난다'고 했고 백발의 정열적인 화가 할아버지는 '마음이 끌린다'며 자신이 아끼던 노트를 선물했다. 닥종이 인형작가는 '테이프 대신 한지를 둘러라, 그 파일엔 그게 어울린다'고 했고 글을 쓰는 선배는 어디서 샀는지 물었다. 구입할 때부터 내추럴한 디자인과 색감이 맘에 들었는데 시간의 축복과 예측하지 못한 비 세레가 더해져, 종이파일은 저만의 존재감을 가진 무언가가 된 것이다. 이제는 상표마저 흐릿해졌지만 파일 한 귀퉁이 얇전히 새겨진 글자는 'gongjang'이다. 그리고 오늘, 친환경 문구 브랜드 공장(gongjang)의 박현정 대표를 만나러 간다.

그린디자인웍스 공장

(gongjang)

박현정 대표

글 차승진  
사진 류병문

# 자연에서 만나다

공장(gongjang)구경하기

www.gongjangs.com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7-13 1F

02-328-0345



## 미대생에서 공장장까지

박현정 대표가 종이파일에 시선을 둔 순간, 눈빛이 살짝 달라지는 그 찰나, 묻지도 않은 질문의 답을 들었다. 주저리주저리 풀어놓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느낌. 때아닌 여름감기에 말을 오래 잇기 힘들어 보였지만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그녀는, 자신의 속 깊은 디자인과 닮아있었다.

“다들 왜 브랜드 이름이 ‘공장’ 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말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에요. 무언가 물건을 만드니까 ‘공장’ 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공방에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工匠)이라는 의미와 물건을 만드는 장소(工場, factory)라는 의미’ 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말하죠. 꿈보다 해몽이지만 은근히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박현정 대표의 ‘공장(gongjang)’ 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일 때 만들어졌다. 미대생이었지만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 배병우 사진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였다. 당시 배병우 작가가 아트선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게 됐는데 미술관 안에 아트샵이 있었다. 어느 날 박현정 대표는 아트샵 주인에게 소소하게 만들어왔던 수공예 수첩을 보여줬고, 이를 인연으로 아트샵에서 수첩을 판매하게 됐다. 브랜드명이 필요하다는 주인의 말에 급하게 지어 말한 게 바로 ‘공장’. 그렇게 박현정 대표는 ‘공장’ 의 공장장이 됐다.

## 모두가 공존하는 길을 고민하는 디자인

처음에 공장은 자연적인 느낌이 강한 수공예 제품이 주를 이뤘다. 은은하고 심플한 멋을 담은 문구류로 입소문을 탔다. 그러던 중 2005년 박현정 대표가 대학원에서 그린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브랜드의 방향이 바뀌었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오브제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에 막 재미를 붙이던 때였는데 윤호섭 교수님의 전시 겸 강의를 있다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거기서 신선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결국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윤호섭 교수님은 제게 멘토이자 길잡이 별 같은 분이세요.”

대표적인 그린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윤호섭 교수는 삶의 방식과 디자인이 한 방향을 이루고 있다. 박현정 대표가 공감하며 따른 부분도 그렇다. 교수님의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본받다 보니 자연스레 ‘그림 디자인은?’ 이란 문제와 부딪혔다. 전엔 디자인 자체의 퀄리티와 표현방식이 주된 고민이었다면 이젠 재료 선택부터 가공,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신경 쓰고 고민하게 된 것. 그래서 공장에서는 제품의 환경성을 자체 진단하는 ‘에코리스트’ 를 만들어 평가한다. 제조 전 단계부터 제조, 수송, 사용, 폐기 단계까지 환경성을 평가해 1~3단계의 그린라벨을 부여하는 것. 여기엔 소재

의 친환경성은 물론 무게와 부피의 최소화, 운반의 효율성, 제품의 수명, 포장재의 친환경성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공장의 움직임에 호자는 가끔 ‘어차피 무언가를 만들면 자원을 쓰게 된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인



나무가 자라서 종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쇄파지나

자투리 종이 하나까지 버리지 않는다.

게 아닌가’ 라고 묻기도 한다. 박현정 대표는 ‘공장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라 답한다. 다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친숙한 디자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재생지를 이용하고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며 디자인을 할 때 버릴 부분이 적게 나오는 판형을 고민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게 ‘자투리 명함 프로젝트’ 다.

“인쇄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버리는 종이가 나와요. 대부분 작은 사이즈라 다른 제품에 활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자투리 종이로 명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제품을 제작하면서 남는 공간에 명함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자투리 명함. 별도의 인쇄 과정이 필요 없고 버려지는 종이도 없으니 일석이조, 여기에 자투리 명함 프로젝트의 모든 수익은 기부한다. 재작년엔 아프리카 수단의 망고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작년엔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에 기부했다. 올 초부터는 친환경 청정장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재생지에 불필요한 장식을 생략하고 역시 종이를 덜 낭비하는 크기를 고민한다. 굳이 친환경을 내세우지 않아도 조금 더 치열히 고민하면 길이 보인다. 박현정 대표는 이러한 고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즐거운 사람이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 박현정 대표는 종이파일과 노트를 선물했다. 파는 제품이 아니라 버려지는 파지로 만든 거라 특별한 모양이 없다고 했다. 종이파일과 노트를 받아드는 손이 어쩐지 무거웠다. 어느 귀퉁이도 구겨지지 않았고, 작은 얼룩도 없었다. 뽀뽀하니 각도 잡혀 있어 정직한 느낌을 주는 물건이었다. 절대적으로 우연이겠지만, 종이파일은 ‘녹색’ 이었다. 집에 돌아와 녹색 종이파일에 원래 가지고 있던 얼룩덜룩한 고동색 파일을 갖다 대자, 한 그루의 나무가 완성됐다. ‘나무가 자라서 종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쇄파지나 자투리 종이 하나까지 버리지 않는다’ 는 그녀의 말이 천천히 떠올랐다. ㉞





얼큰하고 화끈한

## 청양고추 VS 타이고추

여름 맛이

이열치열의 대표주자는 누가 뭐래도 매콤 얼얼한 고추요리다. 그러나 매일 먹던 것 말고 좀 새로운 요리는 없을까? 맵기 위해 매운 요리보다 맛있게 매운 요리 두 가지를 준비했다.

요리&amp;스타일링 박용일(Stylish yong)

어시스트 남경현

사진 이맹호

진행 허은경

청양고추로 만든  
새우딴섬얼큰완탕

준비하기

딴섬(시판용) 28개, 굴소스 4큰술, 국간장 4큰술, 참기름 약간, 통후추 약간, 감자전분물 4큰술, 청양고추 4개, 황·홍 파프리카 1개씩, 양파 1/2개, 다진 마늘 4작은술, 식용유 적당량, 물 4컵

만들기

-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끓으면 딴섬을 넣어 노릇하게 튀긴다.
- 파프리카와 청양고추는 깨끗이 씻어 굵직하게 썰고 양파도 껍질을 벗겨 굵직하게 썬다.
-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은 후 ②의 재료를 넣어 좀 더 볶는다.
- ③의 팬에 물을 부어 끓인 후 ①의 딴섬을 넣어 약한 불에서 졸인다.
- ④의 팬에 국간장과 굴소스, 통후추, 참기름을 넣은 후 감자전분물을 풀어 농도를 걸쭉하게 만든다.

자연에서  
맛보다타이고추로 만든  
사천식 해산물야채볶음

준비하기

가리비 4개, 모시조개 240g, 대하 4마리, 미니오징어 4마리, 굴소스 4큰술, 간장 1큰술, 참기름 약간, 통후추 약간, 셀러리 2줄, 샐롯 8개, 다진 고수 2큰술, 타이고추 12개, 다진 마늘 4작은술, 올리브유 적당량, 소금물 적당량

만들기

- 모시조개와 가리비는 소금물에 넣어 해감하고 대하와 미니오징어는 깨끗이 손질해 씻는다.
- 셀러리는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썰고 샐롯은 껍질을 벗긴다.
-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타이고추, ②의 샐롯, 셀러리를 넣어 볶는다.
- ③의 팬에 ①의 해산물을 넣어 볶은 후 간장과 굴소스, 참기름, 통후추를 넣어 볶는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맛,  
고추

우리는 맛을 짠맛, 단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지만 서양에서는 매운맛을 미각에서 제외한다. 맛은 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부위에 닿아도 느껴지는 화끈 얼얼한 매운 기운은 감각이지 맛이 아니라는 말이다.

고추의 한 성분인 캡사이신(capsaicin)은 서양의 분류법이 어떠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매운맛의 주인공이다. 캡사이신은 고추씨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껍질에도 상당량이 들었다.

고추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추가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대사작용을 활발히 해 비만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가볍게 자극해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만든다. 반면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위장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피부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언제나 그렇듯 장점만 가진 것은 없음을 일깨워준다.

매운맛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를 활용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고추장에서부터 김치, 고춧가루를 향신료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들, 또 날 고추를 그대로 먹는 풋고추까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최근에는 불닭, 불닭발처럼 고통에 가까운 매운맛이 유행하기도 했다.

특히 청양고추는 일반고추보다 매운맛이 더 강한데, 생으로 먹기보다는 잘게 썰어 요리에 첨가하거나 국물이 있는 요리에 씨를 제거하지 않고 넣어 조리하면 매콤한 맛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타이고추(프릭키누)도 요리에 많이 이용한다. 이는 청양고추보다도 훨씬 더 매콤한 맛을 내며 요리에는 주로 건고추를 사용한다. 볶음이나 튀김요리에 적당하며 통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반으로 잘라 사용해 보자.



포항 경민타이어테크

# 인생이란 즐거워 도전

글 차승진  
사진 이맹호

경민타이어테크 김기덕 사장은 올해 불혹(不惑)이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는, 이런저런 일에 쉽게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 이팔청춘, 하고 싶은 일엔 과감히 도전하는 뜨거운 '청춘'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깊이 고민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단 도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실행해 본 후 잘못된 점은 다시 보완하면 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유독 자동차를 좋아했던 김기덕 사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비학원에 등록했다. 지금도 살면서 가장 잘한 일로 어릴 때 정비를 배운 것을 꼽을 정도. 주변의 시선에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도전했기에 지금 경민타이어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활짝 웃는다.

"사실 군대도 방위로 빠질 수 있었는데 지원해서 정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정비공장에 다니다가 입대를 했기에 계속 정비기술을 익히고 커리어를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군대라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픈 마음도 컸고요."

그의 도전정신은 그 이후 진로에서도 계속된다. 30대 초반 캔센터를 열어 열심히 운영하다가 작년 9월 경민타이어테크를 오픈한 것. 주변에 3개의 타이어전문점이 밀집해있어 입지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는 '도전'을 선택했다.

넥센타이어란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도 분명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 길을 걷는 모습이 자신과 공감이 잘 맞기 때문이라고. 물론 타이어 성능에 대한 믿음은 전제조건이다.

아직 오픈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탓에 김기덕 사장은 가게를 알리고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즐겁게 일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줄 거라 믿는다. 더구나 '일단 하고 보는' 자신을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적절히 제어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직원도 곁에 있어 더욱 든든하다고. 벌써 다음 도전과제도 정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건 정비학원을 내는 것이다. 하나의 도전을 이루면 그 다음 도전이 기다린다. 그래서 김기덕 사장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자, 마르지 않는 즐거움의 샘이다. <sup>㉠</sup>





# 세계인이 인정하는 타이어

무궁무진한 가능성 품은 미주팀

## 그 달콤한 내일을 위해 뚝다

|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 경기침체는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넥센타이어는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며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놀라운 성과 뒤에는 본사, 미주 현지법인과의 환상의 팀워크로 매해 놀라운 성과를 더해가는 미주팀이 있으니 달콤한 내일을 위해 달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미주팀이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은?

뜨거운 열정  
정인표 사우

진심을 듣고 전하는 소통  
유성원 과장

팀장님의 카리스마  
김현정 사우

분위기메이커 '나'  
임인섭 대리

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윤구 대리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팀워크  
구원서 팀장

애정 어린 관심  
정우석 사우

지치지 않는 체력  
박성신 사우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  
오영택 과장





## 6년, 미국 브랜드 랭킹 13위

미국의 유명 타이어딜러잡지인 모던타이어딜러는 얼마 전 벡센타이어와 거래하는 미국 내 타이어딜러를 상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254곳의 타이어딜러들이 호감도와 브랜드 취급률 등에서 벡센타이어를 1위로 꼽아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부분 매우 갑작스러운 도약이라 생각하겠지만 척박한 땅을 직접 일군 미주법인과 미주팀에게는 당연한 순간이었다. 미주팀 구원서 팀장도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그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에 진출했으니 문을 두드린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LA에 지점을 설치해 단순한 연락사무소 형태로 시작했고, 나이가 2005년에는 독자적 영업을 하는 독립법인 Nexen Tire America Inc.로 성장했습니다. 법인 설립 첫 해의 매출이 1억 달러였는데 지난 2010년에는 3억 3,000만 달러가 되었으니 예상보다 빨리 큰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간 국내와 현지 안팎의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해 땀 대가라 생각합니다.”

미주 시장은 벡센타이어의 최근 도약에 빼놓을 수 없는 수훈을 세웠다. 지난해 매출 1조 원이라는 비약적 성장의 배경에는 양산공장과 청도공장 생산물량의 30% 이상을 소진할 만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미국, 캐나다, 중남미 시장이 있었다. 미주팀은 해외영업 4개 팀 중에서는 물론, 벡센타이어의 전체 매출을 놓고 보아도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수익성의 UHP(고성능)타이어 매출이 좋다. 거대한 북미 시장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수익율이 가장 좋은

19인치 이상의 UHP타이어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수요 정체 속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미국 내 M/S가 15%대 육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품질, 네트워크 그리고 환상의 팀워크

이런 성과의 바탕을 안과 밖 양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벡센타이어의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매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자동차부품박람회인 세마쇼는 전 세계 타이어딜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세마쇼에 미주팀이 매년 참가해 살펴보니 딜러들을 다시 벡센타이어 부스로 불러 모으는 것은 다름 아닌 품질 만족도, 즉 Quality라는 걸 알게 되었다.

“품질에 대한 호평이 신뢰로 쌓이고, 다시 브랜드 인지도 상승

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미국 내 판매되는 타이어 브랜드 중에서 판매 랭킹 13위를 기록했으니 벡센타이어의 품질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품질이 안에서 찾은 성공 이유라면 탄탄한 현지 판매 네트워크 구축은 밖에서 찾은 이유일 것이다. 현재 벡센타이어가 손잡은 판매 업체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곳으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벡센타이어 역시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안과 밖의 팀워크죠. 저희가 국내에서 세계 시장이 원하는 품질이나 트렌드를 준비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만큼 현지에서 영업하는 동료들은 발로 뛰며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양산, 청도공장에 든든한 축이지요. 어느 한 쪽의 노력이나 성과만으로는 오늘의 결과를 이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안팎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야만 성공이라는 바퀴가 구를 수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 하나의 팀이고, 훌륭한 짝이지요.”

**‘NEXEN’ 이 타이어의 대명사가 되는 날까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국산 수입규제는 중국 청도공장의 물량을 캐나다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와 중남미는 넓은 땅덩이만큼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또한 창녕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도 달라질 것이다. 미주팀원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 위한 각오가 팽창하다.  
“양산공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고 있지만 시장이 넓

어지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꾸준하고 효율적인 물량 운용으로 거래 선의 만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는 물론 해외법인과 지점과의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서 팀장은 물론 8명의 미주팀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팀워크를 강조했다. 미주팀의 가장 큰 힘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유성완 과장, 오영택 과장 등 대부분이 화목한 분위기, 자부할 만한 팀워크를 이야기했다.

“다른 부서 혹은 타 회사와 비교해도 팀원들의 이직률이 적은 이유는 단단한 팀워크가 아닐까요.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공통된 자부심과 책임감이 미주팀을 좋은 성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상의 팀워크로 미주팀이 이루고 싶은 내일의 목표는 무엇일까. 팀원들이 한목소리로 동감을 표한 박성신 사우의 목표에 그 내일이 들어 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NEXEN’ 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글로벌타이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뛰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야 세계를 상대로 한 미주팀이 누구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한발 한발 밀고 나가는 그들. 그런 멋진 팀워크가 분명 세계인이 인정하는 ‘NEXEN’ 이란 달콤한 내일의 바탕이 될 것이다. ㉞

저희에겐 꾸준하고 효율적인

물량 운용으로 거래 선의 만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는 물론

해외법인과 지점과의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져야 할 것입니다.

Nexen Tire America Inc.

Nexen Tire America Inc.

Nexen Tire America Inc.

Nexen Tire America Inc.





품질검사팀 한명수 소장 가족과 함께

## 우리, 친구처럼 살아보자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무뚝뚝하고 엄했던 아버지 상이 많이 달라졌다. 사진을 찍는 내내 아이들과 장난치며 즐기는 품질검사팀 한명수 소장 가족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난다. 하하호호 웃음도 많은 이 가족 덕분에 어렵지 않게 멋진 사진이 완성됐다.

글 허은경  
사진 이맹호

### 회동수원지 걸으며 사진 찍어요

맑은 물과 울창한 숲, 한적한 산책로의 부산 회동수원지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딱이다. 상수원으로 쓰이는 수원지를 따라 길이 나 있는데 지칠 만하면 나오는 나무 데크가 한 박자 쉬어 가기도 좋은 곳. 한명수 소장은 아직 두 살인 고은이가 어려 이런 외출이 쉽지는 않지만 날씨도 아이들 컨디션도 모두 좋아 참 다행이라고 했다.

이번 호 나들이에 참여한 가족은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금메

달감 구성이다. 특별히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치고 보니 훌런인 북 많은 가족. 특히 순하고 방실방실 잘 웃는 막내 고은이 덕분에 한명수 소장은 딸바보 대열에 들어섰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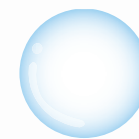
오늘의 가족사진 컨셉은 '소풍'. 산책로를 따라 살방살방 걸으며 좋은 곳이 나타나면 셔터를 눌렀다. 경치도 좋았지만 두 꼬마 녀석의 환심을 사려 준비한 뽀로로 비눗방울도 한몫 단단히 해냈다. 몽글몽글 비눗방울이 피어나자 신나게 뛰어노는 상민이와 아직 기저귀가 거추장스럽지만 덩달아 신이 난 고은

이는 어떻게 찍어도 화보마냥 감쪽했다. 역시 누가 뭐래도 아이들에겐 뽀통령이 최고인 듯. 게다가 빛이 맞춰 입은 티셔츠와 청바지까지 빛을 발하니 누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촬영이 힘들다고 했던가. 한명수 소장과 아내 정지영 씨도 두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싱글벙글 함박웃음이 지어지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빠

이날 아빠 한명수 소장은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와 놀듯이 이들을 돌보며 얼마나 다정한 아빠인지 증명했다. 아내 정지영 씨는 연애시절엔 몰랐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고 잘 봐주니 육아스트레스가 덜하다며 고마워했다. 지금은 든직한 오편노릇을 하지만 갓난쟁이였을 땐 한 성격 했다는 상민이도 한명



수 소장이 밤을 새워가며 어르고 달랬다고. “친구의 친구였어요. 첫눈에 불꽃이 일어난 사이는 아니지만 오래 서로를 지켜보다가 조금씩 끌렸던 것 같아요. 결혼 5년 차지만 성격이 잘 맞아 부부싸움은 딱 한 번 해봤어요. 연애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또 취미도 통해서 연애하듯 재밌게 지내죠.” 부산사람 아니랄까봐 열렬한 롯데 자이언츠 팬인 아내 덕분에 남편도 이제는 야구팬이 됐다. 한때 게임 마니아였던 남편 덕분에 아내도



카트라이더에 입문했으니 서로 취미를 주고받으며 친구 같은 부부로, 연애 같은 결혼생활을 해가고 있다. “아내의 장점이에요? 알뜰하고 지혜롭고 또 음식솜씨도 좋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양념닭발인데, 젊은 사람이 잘하기엔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매우 자랑할 만합니다.” 오솔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제법 나들이 분위기가 났다. 더없이 화목한 가족과 함께하니 덩달아 기분 좋은 오후. 남편에게 특별히 할 말 없냐고 물으니 애교만점 아내가 “여보 사랑해~”라고 건넨다. 다정한 한명수 소장이라지만 쑥스러운지 “됐거든!”하며 장난처럼 받아넘기더니 이내 “잘 살아 보자”라며 빙그레 웃어보였다. 녹음이 우겨진 회동수원지가 이 부부 덕분에 핑크빛으로 물들 뻔했다. <sup>10</sup>

\* 〈가족사진 찍는 날〉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예쁜 가족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박수현 인사팀 055.370.5283



# 천 년 수도 그늘 아래서

고정분, 김세훈 사우와 함께 걸은 경주 역사길

## 쉬어가기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명호

화려한 천 년 사직, 경주를 찾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딜 때마다 천 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그곳. 역사의 뒤  
안길에서도 원형 그대로 우릴 기다린 다소곳한 풍경을  
천천히 걸었다.



### 숲 향기 그득하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경주는 쉬웠다. 소풍, 답사, 수학여행 등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고 제대로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 일행과 우르르 눈도장만 찍고 다음 곳  
으로 이동하던 기억이 대부분이라 어찌 보면 경주는 참 가깝고  
도 먼 도시였다.

이번 동행한 두 사람과 경주가 유난히 잘 어울린 것은 그 때문  
이었다. 2009년 함께 입사한 연구기획팀 고정분 사우와 설게

해석팀 김세훈 사우. 동기를 넘어 친구가 된 두 사람이지만 고  
정분 사우는 양산에서, 김세훈 사우는 천안에서 근무를 하는지  
라 서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단다. 입사 2년이 다 되어가  
는 지금, 마땅한 추억거리 하나 없다는 두 사람이 경주처럼 가  
깝고도 멀어 보였다.

여정의 시작은 지상에 세워진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였다. 숲  
길은 아침 일찍 내린 비로 촉촉히 이슬을 머금은 채 손님을 맞  
았다. 경주의 가장 대표 유적지인 불국사는 신라 23대 왕인

01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토함산 옥로수

02 소원을 빌며 정성스레  
돌탑을 쌓는 두 사우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이 발원했다는 설과 그보다 훨씬  
앞선 19대 눌지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전  
하지만 둘 다 35대 경덕왕 때 중창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  
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왜병에 의해 금동불상과 석교, 탑만 남  
고 모두 불타 1900년에 재건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유적만으  
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록될 만큼 가치 높은 문화  
재다.

일주문부터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을 지나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가 있는 광장까지 자박자박 걸었다. 아름답고

정교한 다리를 감상하며 오른편의 토함산 옥로수를 한 모금 마  
시노라면 숲의 싱그러움이 입안에 그득해 신선놀음이 따로 없  
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석가탑과 다보탑, 대웅전, 극락전을 돌  
아 나한전에 들어섰다. 돌을 쌓아 소원을 빈 돌무지들이 즐비  
하다. 어떤 바람을 담았는지 모르지만 두 사우도 정성스레 돌  
탑을 쌓았다.

걸음걸이가 썩씩하다 했더니 두 사람 모두 운동과 여행을 좋아  
한단다. 특히 김세훈 사우는 1주일에 한 번씩 꼭 클라이밍 센터  
를 찾는 암벽등반 마니아다. 고정분 사우도 걷기를 좋아해 산  
에도 오르고 평소 산책을 즐기는 편이다. 그간 쌓인 이야깃거  
리를 하나하나 풀어놓니 어느새 불국사 곳곳을 모두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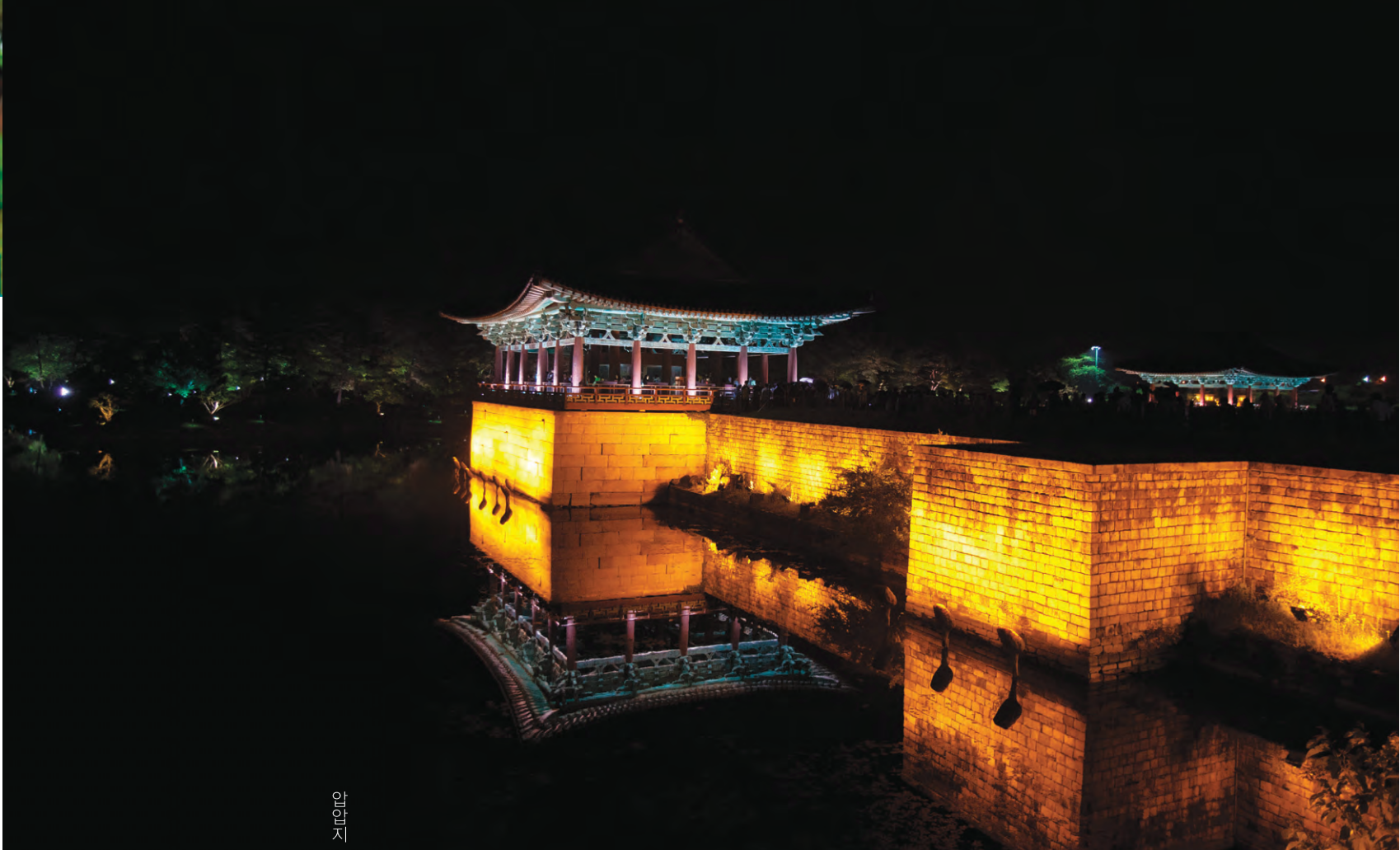
### 천 년 역사의 속삭임을 듣다

오후엔 비가 그친다고 했건만 알뜰게도 하늘은 꺾었다. 그러나  
모처럼의 여행이니 심기일전해 대릉원으로 향했다. 천마총 같  
은 왕릉급 대형분부터 소형분에 이르기까지 크기도 시대도 다  
양한 분들이 모여 있다. 공원처럼 꾸며진 길을 다람쥐와 함께  
걸으며 천마총에 다다랐다. 약 1,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도 화려하고 세련된 천마도와 화려한 금관, 웅장한 무덤의 규  
모가 그 시절의 신라를 상상하게 한다.

천마총을 나서면 작은 연못을 앞의 황남대총이 눈길을 끈다.  
두 개의 고분이 하나로 이어진 표주박 모양이다. 죽어서도 함







경주 역사길 (시내 코스)

돌보시

01

03

천성대

반월성

석빙고

안압지

05



대릉원

02

01 서방 극락세계의 깨달음을 얻은  
이가 넘는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02 죽어서도 함께하는 부부의 연,  
황남대총

03 동양 최고, 세계 최초의  
천문대 천성대를 걸었다

04 국화모양이 찍힌 황남빵은  
마치 빙글빙글 안경 같다

05 야경이 더욱 멋진 안압지

깨하려는 부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대릉원 부근은 시내권역이라 하여 유적지가 웅기종기 모여 있다. 발걸음을 재촉해 월성 지구로 들어섰다. 넓게 늘어선 왕릉을 구경하며 걷노라면 왼편에 천문대를 만난다. 동양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자 세계 최초의 천문대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된 건축물이란 설명에 수없이 듣고 본 천문대가 문득 새롭게 느껴진다. 천문대 옆에는 꽃밭이 펼쳐지니 꽃밭을 가로질러 걸어도 좋다.

김알지 설화가 깃든 계림을 지나 월성에 다다랐다. 고목이 우거진 숲으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든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공터와 석빙고가 반긴다. 너른 토끼풀밭을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점프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처럼 깡충깡충 뛰는 두 사람, 평소 운동을 해서인지 지친 기색 없이 마냥 밝다.

숲길을 빠져나와 안압지에 도착했다. 신라 시대 왕과 귀족들의 연회 장소였으나 고려에 멸망한 이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근

래 복원된 곳이다. 못 바닥에 돌을 깔아 수풀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거나, 물이 들어오는 지점에 판판한 돌을 깔아 못 바닥의 침식을 막은 선조들의 지혜에 절로 감탄하며 걷다 보면 천 년 역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걷다 보니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황남빵을 꺼내들었다. 황남빵은 경주의 특산명파로 달콤한 팔소가 일품이다. 맛있게 먹던 고정분 사우가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다. 마치 빙글빙글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낀 듯 눈을 가리니 질세라 김세훈 사우드 동참해 모두가 배꼽을 잡았다.

안압지를 끝으로 5시간에 걸친 경주 역사길 걷기가 끝났지만 눈에 품은 길이 아쉬워 온 길을 되짚어가며 다시 걸었다. 되돌아가는 길은 목적지를 향해 걸던 그 길과는 또 달랐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고 봤던 것들도 새롭게 보였다. 오늘의 추억을 잊을세라 꼭꼭 채워 담으니 어느새 대릉원 앞.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이리 가는 줄 몰랐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꼭 불러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김세훈 사우는 이날 하루가 입사한 지 만 2년이 되어 받는 선물 같다고 했다. 거리가 가까워 경주가 친근한 고정분 사우드 오늘의 경주는 남달랐다. 역사를 알고 보다 깊게 경주를 들여다보니 알이 꽤 찬 열매 같았다고.

가깝고도 먼 도시는 어느덧 친구가 되었다. 천 년 영광을 누리고 뒤편길로 사라진 경주는 이제 없다.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갈무리 되어 있을 터이니. ⑩

천 년 영광을 누리고

뒤편길로 사라진

경주는

이제 없다.



# 머리는 쿨하게!

신호철 대표, 이용택 실장, 박진욱 사우와 함께

# 가슴은 뜨겁게!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서로 투박하니, 동하게 말을 하는데도 입가엔 미소가 도돌이표처럼 어려 있다. 듣는 사람도 오글거리는 반지르르한 칭찬은 못하지만 무심히 던지는 이야기엔 속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수원지점 박진욱 사우와 스피드메이트 송죽점 신호철 대표, 이용택 실장은 차갑고도 뜨겁다.

글 차승진  
사진 류병문

## 사무실에서 떠나는 여름휴가

튜브와 부채, 선글라스에 시원한 물이 담긴 대야까지 등장하자 모두들 시선집중이다. 깔끔한 정장차림의 스피드메이트 송죽점 신호철 대표와 박진욱 사우가 바지까지 걷어 부치자 상황은 명료해졌다. 이들은 지금 한낮의 일탈을 계획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햇볕에 즐겁게 맞설 무기는 낮잠보다 더 달콤하다는 시원한 족욕이다.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여름휴가를 즐긴 직장인이 아닐까요? 막상 튜브를 옆에 끼니 정말 바다에 온 것 같습니다.”

박진욱 사우의 익살스런 표정에 옆에서 지켜보던 신호철 대표와 이용택 실장도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러더니 튜브를 더 올려라, 한 손을 번쩍 들어라 옆에서 한 마디씩 훈수를 둔다.

“작년 6월에 처음 만났으니 이제 서로 안 지 1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형님처럼 친근하고 편합니다. 배울 점도 많아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2010년 6월 벡센타이어와 SK가 제휴를 맺으며 세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벡센타이어 수원지점에서 대리점으로 타이어를 배송했지만 올 1월부터 시스템이 바뀌었다. 1월에 오산직배소가 문을 열었고 5월엔 스피드메이트 송죽점에서 송죽직배소를 오픈했다. 세 사람이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친근하게 함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란히 간이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세 사람, 은근슬쩍 발장난을 하며 물을 튀기고 선글라스를 번갈아 끼는 모습이 영락없이 개구쟁이 소년들이다.



스피드메이트 송죽점  
신호철 대표



수원지점  
박진욱 사우

하게 웃는 표정! 그리고 서로의 작은 장점이라도 높이 여기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 오고가는 숟가락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정

자꾸 밥을 먹고 가라며 붙잡는 셋, 알고 보니 스피드메이트 송죽점엔 ‘직원식당’이 있다. ‘맛있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신호철 대표의 철칙에 따라 송죽점에는 집밥처럼 뜨끈뜨끈한 점심을 차려주시는 이모님이 계신다. ‘진욱 씨는 일부러 11시 반에 맞춰 와서 밥을 먹고 간다’며 슬쩍 한 마디하는 신호철 대표, ‘밥맛이 꿀맛이라 어쩔 수 없다’며 능청스레 보조 주방장 역할을 하는 박진욱 사우다.

“오늘 족욕을 하며 미니 여름휴가를 즐겼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여름휴가는 따로 있습니다. 진욱 씨가 올 여름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대접하겠다고 했거든요. 함께 부산바다도 보고 신선한 회도 먹을 생각을 하니 다가오는 무더위도 무섭지 않네요.”

이용택 실장의 눈빛엔 이미 부산의 바다가 어려 있다. 이들의 뜨끈한 우정은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맞이할 힘이 되지 않을까. ‘타이어 판매 성수기’이자 ‘자갈치 시장 휴가’가 예정된, 세 남자의 화끈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㉟



스피드메이트 송죽점  
이용택 실장





## 우리집 귀요미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였다 하면 사고를 치는 말썽꾸러기지만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반려동물. 깜식이부터 순둥이까지 넥센타이어 사우 가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녀석들을 소개합니다.



태한이와 강뽀빠



깜식이



민이



온순이



하늘이

### 강아지니까 강뽀빠! \_ 권영일 UHP파트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아들 태한이가 공원에 산책 나온 어느 집 강아지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아내와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했지만 태한이는 용돈을 아껴 모아둔 20만 원으로 강아지를 사겠다며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찬성했고 그렇게 분양받은 강아지가 뽀빠입니다. 이름은 태한이가 손수 지었는데 7살 난 아들 녀석의 상상력에 우리는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네가 권태한이니까 네 동생이라 생각하고 권뽀빠라고 하자.”

“왜 권뽀빠야? 앤 강아지니까 강자를 따서 강뽀빠지!”

태한이는 뽀빠가 말썽을 부릴 때면 제법 오빠답게 “강뽀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넌 3년 동안 간식 금지야!” 라고 외치지만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뽀빠랍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달려나와 반가움에 짹짹거리는 뽀빠. 이런 뽀빠가 있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더 커졌습니다.

### 먹보 귀요미 깜식이 \_ 김재영 연구기획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라이언헤드종의 새끼 토끼입니다. 어머니께서 까마니까 까미라고 지으셨는데 알고 보니 수컷이라 깜식이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기엔 사리분별을 너무 못하지만 밥 주는 사람은 알아보는 먹성 좋은 놈입니다. 토끼라서 뛰어다닐 줄 알았는데 뒷밖에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전생에 느긋한 양반이었나 봅니다. 참 희한하게 발만 흰색인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반신욕 犬 민이 \_ 마선미 고객만족팀

이제 8년을 지나 9년 차에 접어드는 시츄 암컷 민이입니다. 평소엔 애교도 많고 가족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녀석이지만 화나면 대형견 못지않게 앙칼진 모습도 보여준답니다. 시츄는 순하다던데 우리 민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민이가 반신욕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보통 개들은 목욕을 싫어하는데 민이는 목욕하는 걸 매우 좋아하고 심지어는 반신욕까지 느긋하게 즐기곤 합니다. 엄청 깜찍하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고 소중한 추억 쌓으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사랑해!

### 행운의 마스코트 하늘이 \_ 서영길 선행개발팀

저희 집 애견 ‘하늘이’입니다. 예전에 오래 키우던 개가 수명을 다해 죽었는데, 며칠 안 돼서 하늘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키우던 개가 다른 개로 환생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생각하고 이름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와 엉뚱한 행동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이를 보며 웃곤 합니다.

제가 넥센타이어에 입사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나는 날 하늘이는 새끼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집에 접경사가 난 게 웬지 하늘이가 행운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㉞

### 간식 앞에서는 온순하지 않은 온순이

\_ 김선식 가류파트 조장

이제 두 살이 된 저희 집 귀염둥이 ‘온순이’입니다. 좋은 보통 똥개라고 부르는 믹스견이죠.

하루는 딸과 친구네 공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키우는 개가 새끼 낳은 걸 보고 딸이 어찌나 귀여워하는지 결국 한 마리만 달라고 졸랐답니다. 그렇게 저희와 온순이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배를 발라당 드러내고 낮잠을 자거나 쿠션을 가지고 놀다가 피곤한지 베고 자는 모습을 보면 이름처럼 온순 그 자체. 그러나 간식 앞에서만큼은 온순하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고기 간식을 꺼내면 눈을 번쩍 뜨고 달려드는 모습이 어찌나 날렵한지. 우리 가족은 온순이가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온순아 사랑한다!



\* 다음 <별별 콘테스트> 주제는 ‘사랑하는 내 짝꿍’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사랑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박수현 인사팀 055.370.5283



# 아직은 부족하지만

신입사원 OJT 성과발표회를 마치고

##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글 조미오 경영관리팀  
사진 이맹호

5월 26일, 3개월에 걸친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내 교육훈련)가 끝났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다시 출발선에 선 듯 기분이 묘했지요. 멀리 흩어졌던 동기들은 물론 서로 바빠 얼굴보기 힘들었던 동기들까지 모두 반가운 얼굴이지만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니 아마 다들 떨렸을 겁니다.

본격적인 OJT 성과발표회 시간, 먼저 연구소 공정연구팀 신현 등 사우가 '폴리머 및 보강제 함량에 따른 물성연구' 등 직무교육에서 배운 것을 발표했습니다. 실험결과는 정석과 달랐을지 몰라도 3개월 동안 실험에 쏟은 열의가 느껴져 가슴이 찡했습니다. 중아팀 강영한 사우는 넥센타이어만의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현실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물류팀 김인선, 손준영 사우는 OE납품규격 다원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논하는 등 각자 분야에서 쌓은 지식을 마음껏 선보였지요.

가장 큰 감채를 받았던 발표는 안전환경팀 허성원 사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속적인 무재해 달성 방안과 안전방호장치의 효율성을 점검한 발표였는데 현장을 누비며 찍은 사진들, 직접 느끼고 고민한 작업장 통로 개선 방안 등 신입사원의 열정으로만 가능한 결과물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동기들의 설렘 가득한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시간은 강병중 회장님과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날 회장님께서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 직원과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저희가 2020년 매출액 10조 원의 비전을 가진 넥센타이어를 이끄는 훌륭한 재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2020년 넥센타이어 속의 제 모습을 상상하게 됐지요. 그리고 제 몫의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솟았습니다. 동기들에게도 더 구체적인 내일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창녕공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은 토대공사 중이고 당일엔 비까지 내려 동영상만 보았지만 미리 본 창녕공장의 철저한 자동화 시스템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창녕공장의 모습을 보니 넥센타이어 제품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릴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배우고 익혀야 할 일이 가득한 우리들. 하지만 이번 OJT 성과발표회에서 우리는 넥센타이어를 더욱 빛나게 할 의욕과 열정, 그리고 패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이날 공유했던 설렘과 희망은 언젠가 다시 모여 더 큰 성과를 이야기하는 날까지 우리를 달리게 하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㉞



타이어휠스타 진접1호점

# 나의 다른 이름 끈기

글 안성은  
사진 이맹호

타이어휠스타 진접1호점의 박동진 점장은 10년 전 이미 잘나가는 젊은 사업가였다. 단기간에 역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일이 한 번 꺾이기 시작하자 빚도 그만큼 순식간에 늘어나 버렸다. 그때 재기의 발판이 된 것이 대구의 작은 타이어매장이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만둘 수 없으면 더 빨리, 더 잘하자' 라고 되뇌이며 악착같이 일했다. 그러니 월급도 당달아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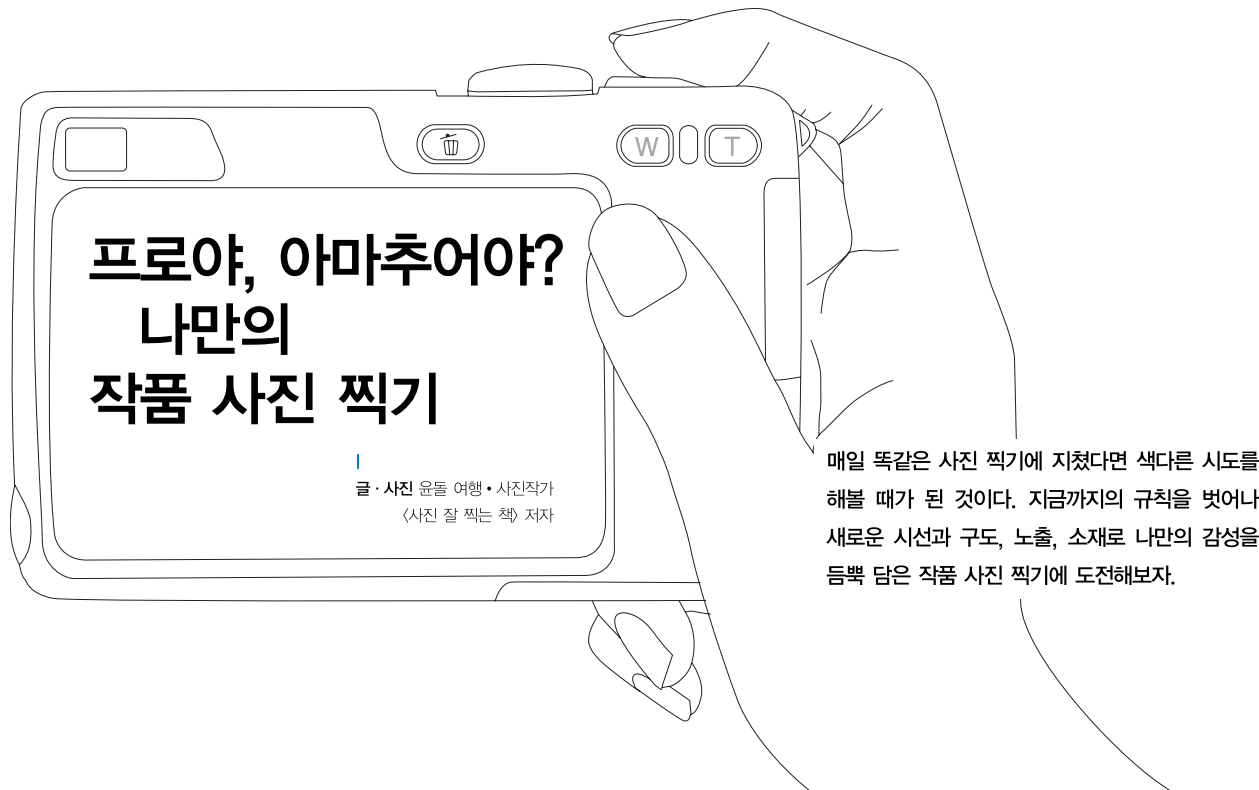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흘러 2009년, 연을 맺게 된 타이어휠스타의 대표는 박 점장의 진취적이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끈기를 알아보고 함께 타이어매장을 꾸려나가자 했다. 그리고 이듬해 매장이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평택, 병점, 군포 등에 다섯 개의 대리점을 둔 실속 가득한 체인이 되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고픔니다. 타이어 업계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인데 지금은 겨우 점 하나 짚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어휠스타 진접1호점은 요즘 오픈 초기 때처럼 다시 투지를 다지는 중이다. 대리점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타이어매장이 두 군데나 오픈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환영하고 싶단다. 이따금 초심을 잊을 때가 있는데 경쟁 매장 덕택에 흐트러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는 기회가 되니 말이다.

지는 것 싫어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박 점장은 누가 봐도 경사도 남자다. 직원들의 능력과 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애써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직설적인 충고를 건넨다. 고객에게도 솔직한 상담을 철칙으로 한다. 넥센타이어가 어떠냐고 묻는 고객에게는 '한 번 써보고 얘기하시죠' 라고 말할 정도다.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그의 말투와 열정을 보니 타이어업계의 큰 인물이 되겠다는 그의 포부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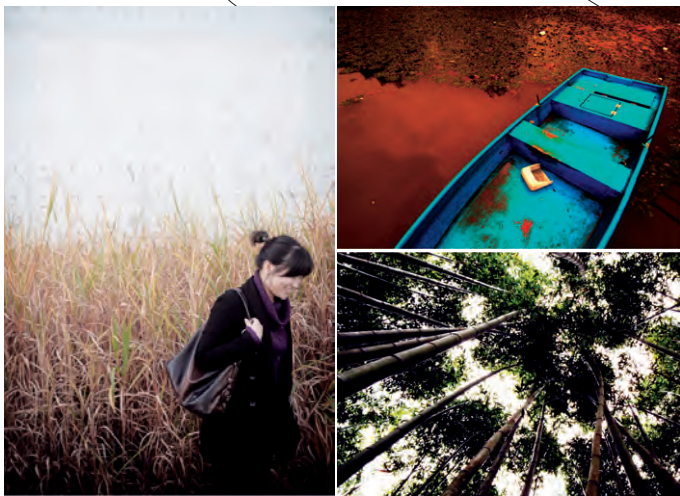
#### 화이트밸런스를 이용하면 느낌 충만

디지털카메라에는 촬영한 사진의 색을 원래 피사체가 가진 색상으로 보정하기 위해 '화이트밸런스'라는 기능이 있다. 백열등 아래에서 피사체가 원래 색상보다 붉게 찍히거나 형광등 아래에서 푸르스름하게 촬영되는데 이것을 원래 색상으로 맞추기 위해 강제로 백열등 모드에서는 푸른색을 가미해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형광등 모드에서는 반대로 붉은색을 가미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빛에 의해 색이 왜곡되는 것을 기본색(화이트)으로 보정해 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거꾸로 이용해보자. 노을이나 일출 사진에서 오히려 붉은색이 강조되게 화이트밸런스 모드를 설정한 후 촬영하면 더 큰 색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형광등 모드로 붉은색을 강조해 촬영한 사진이다. (NIKON D3, 200mm, F11, 1/640sec, ISO 200)



매일 똑같은 사진 찍기에 지쳤다면 색다른 시도를 해볼 때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칙을 벗어나 새로운 시선과 구도, 노출, 소재로 나만의 감성을 듬뿍 담은 작품 사진 찍기에 도전해보자.



#### 극단적 연출로 파격적인 사진 얻기

파격적인 사진은 극적인 연출을 해야 나온다. 배경과 피사체가 극단적으로 다른 색상이거나, 피사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촬영하는 구도,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보거나 내려보는 방법으로 촬영해보자.

>>>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를 한쪽에 놓더라도 시선이 있는 공간을 많이 남겨두어 안정감 있게 연출하지만 이 사진은 시선이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극적인 느낌을 살렸다. (NIKON D3, 35mm, F2.8, 1/125sec, ISO 200)  
>>> 붉은 노을이 지는 강물에 떠 있는 파란색 작은 배를 촬영했다. 배경과 피사체의 색상 대비를 통해 사진의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FineFiX S3pro, 12mm, F8, 1/45sec, ISO 200)  
>>> 아래에서 90도 위를 올려다보고 촬영할 때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측광 지점을 피사체에 맞추어 촬영하거나 카메라의 촬영모드를 매뉴얼 모드(M)로 설정한 후 조리개와 셔터속도를 지정해 촬영하는 것이 좋다. 밝기 차이가 커서 자칫 너무 어둡거나 밝게 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CANON 50D, 22mm, F18 1/30sec, ISO 200)

#### 주변 배경을 이용한 재밌는 사진

주변 풍경이나 배경을 살펴본 후 상황에 맞게 연출하면 재미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흔히 보는 사진이기도 한데 자전거도로에 그려진 자전거를 마치 타는 것처럼 도로에 누워 연출하거나 벽화 속 꽃향기를 맡는 모습을 연출하는 사진 또한 주변 배경을 이용한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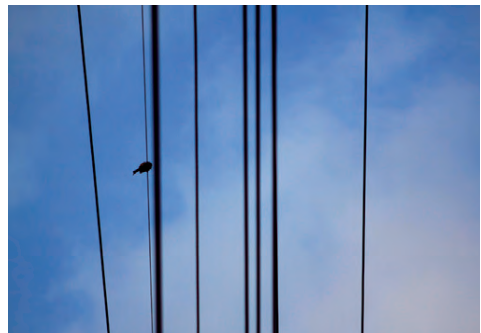
>>> 서울의 작은 동네에 그려진 벽화에 맞게 연출했다. 창을 내다보는 개의 그림처럼 창에 서서 찍은 사진이다. (NIKON D700, 70mm, F11, 1/320sec, ISO 400)



#### 내 주위 모든 사람과 사물이 멋진 소재

평소 늘 보던 사람과 사물도 카메라 부파인더를 통해 상하좌우로, 가까이 혹은 멀리 등 다양한 시선으로 촬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작품이 될 때가 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쁘고 멋진 사람, 아름다운 풍경만 좋은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니니 자주 접하는 흔한 피사체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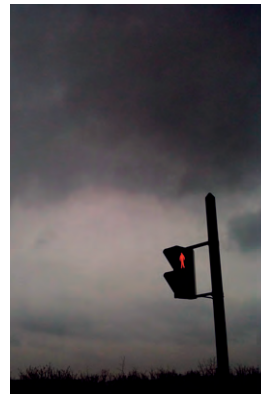
>>> 흔히 보는 전깃줄 위의 새 한 마리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CANON 50D, 70mm, F2.8, 1/1600sec, ISO 200)



#### 빛을 최대한 줄여 강렬하게 표현

피사체를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주변 풍경이 어두운 곳이거나 최대한 어둡게 촬영해야 피사체가 돋보일 수 있다.

>>> 도로에서 신호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iPhone 3GS, F2.8, 1/673sec, ISO 70)



#### ‘스토리’가 있는 사진은 감동이 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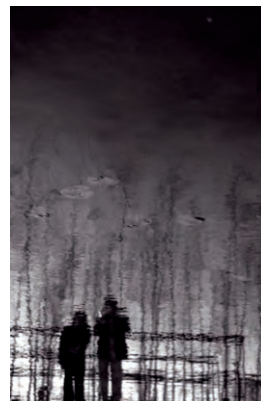
글씨가 뽀뽀하게 채워진 책보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읽혀지는 이야기와 감동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스토리가 있는 사진은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증폭되어 감동과 감정을 전달한다.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 장을 연속해서 촬영하거나 대비해서 촬영해도 좋다. 예를 들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싶다면 '웃는 사진'과 '우는 사진'을 연달아 촬영하거나 함께 담으면 된다.

>>> 비오는 날, 땅에 버려진 우산을 뒤로 하고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필자가 우산을 놓고 건물 난간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을 찍다가 우연히 촬영됐다. (NIKON D700, 24mm, F4, 1/30sec, ISO 400)

#### 반영이라는 또 다른 모습

거울이나 물에 반영된 모습을 촬영하면 예상치 못했던 멋진 풍경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카메라 위치를 최대한 낮게 해서 촬영해야 물에 반영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 물에 비친 연인의 모습이다. 의도하는 느낌을 살리도록 다양한 구도와 구성으로 촬영하고 물의 흐름이 사진에 반영되지 않도록 1/30sec 보다는 빠른 셔터 속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메라의 포커스는 피사체에 맞추어 촬영해야 또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FineFiX S3pro, 38mm, F3.3, 1/750sec, ISO 160)





# 일복 많은 손을 위하여 방아쇠 수지 증후군 예방법

자료 《박지성 신수지의 123스트레칭》 자생한방병원  
권대익 지음, 전나무숲 펴냄

##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신체 부위 중 한 곳인 손. 가장 활동적이고 유능한 탓에 일복을 타고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 같은 손가락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사용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일꾼의 피로를 풀어주자.

### Stretching 1

- ① 왼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당겨 뒤로 젖힌 상태에서 10초간 멈춘다. 팔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 ② 왼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가슴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앞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10초간 멈춘다. 팔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 손목터널증후군 조심하기

요즘 일은 물론 PC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컴퓨터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인다. 이런 동작을 오래 반복하면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저리는 정도지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물건을 쥐거나 단추를 채우거나, 방문을 여닫는 간단한 동작도 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키보드로 작업하는 직장인이나 휴대용 게임기 및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자주 쓰는 청소년, 손목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여성은 손목터널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5분씩만 스트레칭을 해줘도 손목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Stretching 2

- ① 허리를 곧추세우고 앉는다.
- ② 양팔을 아래로 쭉 뻗어 손목을 안팎으로 회전시킨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 평소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손가락 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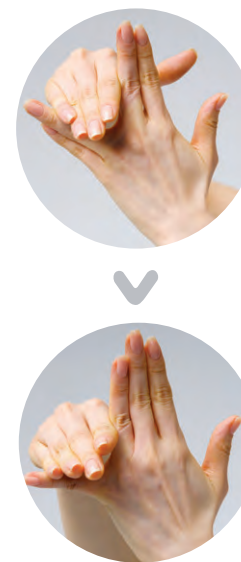
손가락에 피로가 쌓이면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손가락 근육의 힘줄 부위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손가락을 굽히고 펼 때 아픈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나 퇴행성관절염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려면 키보드를 많이 치고 난 뒤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뒤,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기 전후에 손가락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움직여 손과 손가락 근육을 골고루 풀어주면 된다.



### Stretching 3

- ① 네 손가락을 모아 다른 손의 약지와 중지 사이에 넣어 벌린다.
- ②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골고루 넣어 벌려준다.



### Stretching 4

- ① 손목에 힘을 빼고 물기를 털 듯 손을 털어준다.
- ② 주먹을 쥐고 원을 그리듯 손목을 돌려준다.





# 아저씨의 버킷 리스트

## 중년에 대처하는 남자의 자세

| 글 윤용인 <심리학 남자를 노크하다> 저자

당신은 어느새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저씨는 남자의 삶에서 반을 넘게 차지하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직책이니까요. 가정과 회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만큼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푸르게 잘 영글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남자의 두 번째 인생은 ‘아저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 아저씨 발목 잡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다. 한국의 배급사에서는 친절하게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아줌으로써,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 배려했던 영화다.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시한부 인생의 두 노인이 의기투합하여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꼭 해보자!’라며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문신하기, 카레이싱과 스카이다이빙, 눈물 날 때까지 웃어 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화장한 재를 강통에 담아 경관 좋은 곳에 두기-을 적어두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며 지워나간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유독 중년 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저씨라 불리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고 싶은 저마다의 <버킷 리스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좌절은 그 목록을 적기 위해 하얀 종이를 펼쳤을 때 시작된다. 하고 싶은 것은 무척 많은데 막상 정리하려니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좌절의 원인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평생을 일만 하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고 고작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며 휴일을 보냈으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20대 때는 돈이 없고, 30대 때는 시간이 없고, 40대 이후부터는 하고 싶은 것이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아 오늘날 사거리 대포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많은 아저씨들의 현실이다.

특히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만드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생각이 있으니,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정신이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거나 시작하는 것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낯선 곳에 도전할 때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때문에 주춤한다. 아저씨가 되면서 생긴 이 현상은, 암과 고혈압 등 성인병에 필적하는 위중한 질병으로 자기 진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바퀴벌레 잡듯 퇴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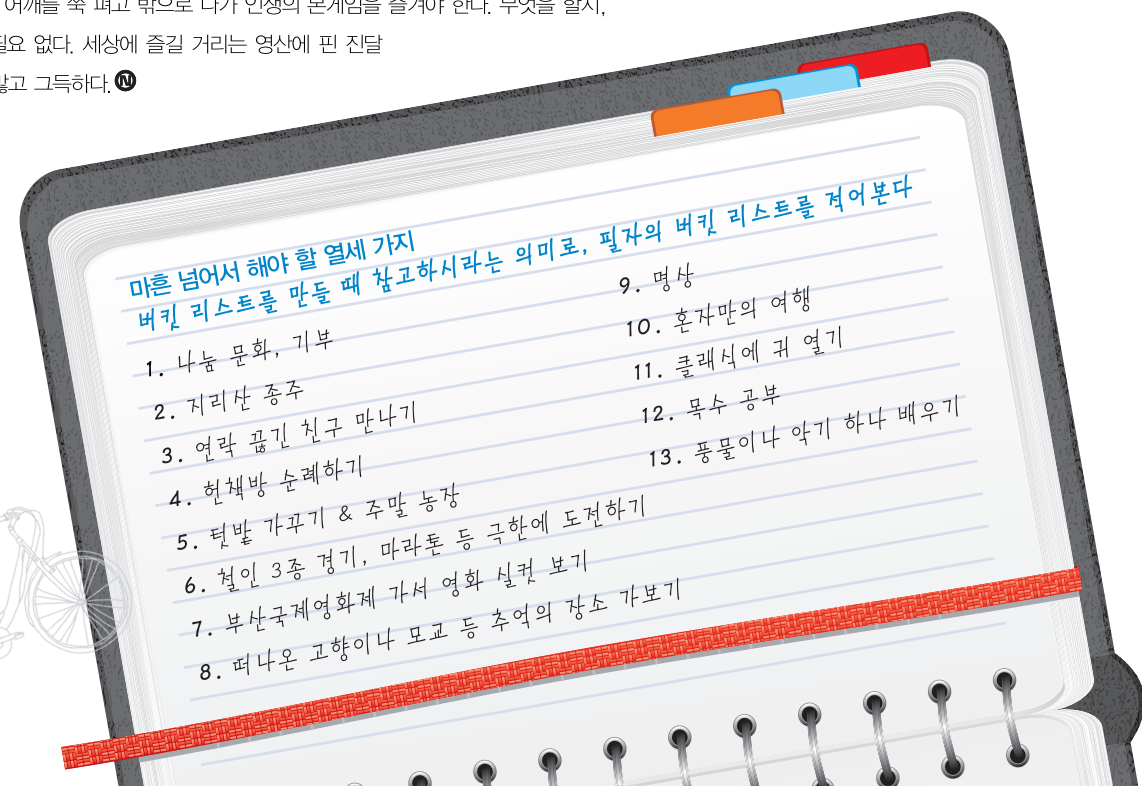
### 누가 뭐래도 지금은 ‘아저씨 전성시대’

일간지에서 ‘아저씨 가라사대’라는 고정 칼럼을 제안받았던 것이 5년 전이다. 당시 신문사의 기획 의도는 아줌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고립되고 시선을 받지 못하는 아저씨에게 힘을 주자는 것이었다. 모계 중심의 가정에서 내몰리고, 영계 중심의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저씨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삼겹살과 소주 냄새를 풀풀 풍기며 다리를 짹 벌리고 잠에 빠진 심야 버스 속 아저씨나 귀청이 떨어지게 큰 소리로 통화하는 전철 속 아저씨나, 한물간 양복을 입고 어깨가 처진 채 걸어가는 초라한 아저씨가 대세였던 것이다. 자신의 버킷 리스트에 단 하나의 희망사항도 적지 못하는 아저씨의 모습도 물론이었고.

그러나 장기 칼럼을 종료하고 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내가 다니는 테니스장에 새로 가입한 친구는 고작 스물을 갓 넘은 대학생인데, 나를 비롯하여 아저씨 회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늘 아저씨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겠으나 그는 이런 식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아저씨들은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느긋해서 좋아요. 제 친구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아저씨들에게는 그런 초조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또래들과 놀기보다 아저씨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빨리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청년의 입을 통해 아저씨 찬가를 들으니 참 기분 좋은 일이나, 이 현상이 테니스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 키운 아저씨 하나 열 청년 안 부럽다’는 표어가 딱 맞을 정도로, 사회 여기저기에는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활발하게 실천하는 아저씨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명상센터에도 아저씨가 반이다. 그들은 ‘나는 무엇인가’의 화두를 던지며 자기 찾기의 우아한 시간을 가진다. 대학원에서도 머리 화끈화끈한 아저씨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뒤통은 향학열에 불타 배움의 즐거움에 빠진 그들에게 마흔은 사춘기고 쉰은 청춘이다. 마라톤, 테니스, 등산, 여행 등의 커뮤니티는 또 어떠한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열에 여덟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대중문화도 아저씨들의 판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나는 가수다>에서 세월의 호랑이를 타고 아저씨로 나타난 임재범은 이전보다 관록 있고 여유 있는 무대 장악력으로 <나만 가수다>를 생생히 증명했다. 어록을 만들 정도로 입만 열면 진주를 쏟아내는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TV 연애 프로그램을 장악하더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국민 멘토로 거듭났다.

신세대, 엑스세대 등의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현재 아저씨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게다가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자들은 인생의 절반을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저씨 전성시대>의 세태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혹시 당신만 이 현상을 느끼지 못한 채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아저씨들은 펄펄 날고 있는데 당신만 거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흰머리를 세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깨를 쭉 펴고 밖으로 나가 인생의 본계임을 즐겨야 한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즐길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세상에 즐길 거리는 영산에 핀 진달래보다, 밤하늘의 별보다 많고 그득하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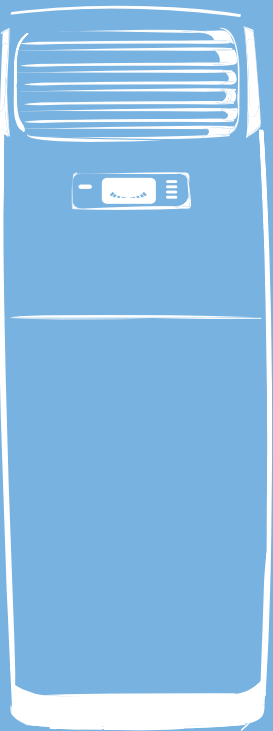




# 전자기기 장수의 비밀, 청소에서 찾다

글 안성은  
자료협조 클린다나와(0505-509-1999)

전자기기의 수명은 청소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에어컨은 필터 청소가 장수의 핵심 키워드이고, 세탁기와 컴퓨터 역시 제품 안에 시커멓게 자리 잡은 먼지와 싸움이 관건이다. 집 안의 전자기기가 오래도록 뽀뽀하게 작동하도록 털고 쓸고 닦자!



## 에어컨&공기청정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내부의 필터 청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터에 먼지가 끼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실내 공기마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서 분리한 필터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고, 주방세제를 풀어놓은 물에 10-20분 담가둔다. 이때, 필터를 비벼 빨면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먼지와 때가 어느 정도 빠졌다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행군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다.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해주고 시중에 판매하는 에어컨 필터 전용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전자기기 청소 기본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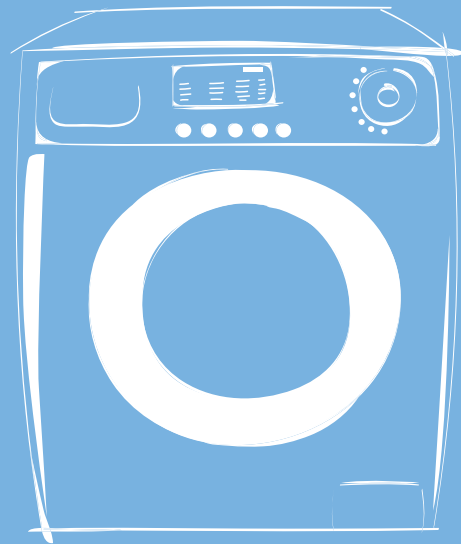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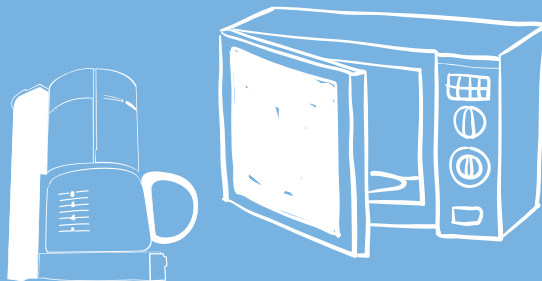
- 1 전자기기 청소의 첫 번째 수칙,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뽑는다.
- 2 알칼리성 세제와 물을 1:20의 비율로 섞어 놓는다.
- 3 초극세사 헹굼이나 고운 붓으로 먼지를 털어 청소기로 빨아낸다.
- 4 ②를 적신 걸레로 나머지 먼지를 닦아주고 손이 닿지 않는 틈새 부분은 일자 드라이버에 헹굼을 씌워서 닦아낸다.
- 5 액정은 세제로 닦으면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깨끗한 마른 걸레로 닦는다.

## 전화기&휴대폰

전화기의 수화기 안쪽 부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게다가 전화기는 얼굴 등 인체에 가깝게 닿는 전자기기이므로 특별히 청결에 신경 써야 한다. 수화기의 세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이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화기는 알코올을 묻힌 화장솜과 면봉을 이용해 꼼꼼히 닦는다. 휴대폰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해서 닦는 것이 포인트.

## 전자레인지&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오래 쓰면 가열된 음식물의 잔여물이 내부를 더럽히곤 한다. 그렇다고 설거지 하듯 물 청소도 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식초와 물을 1:2 비율로 섞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간 가열해보자. 전자레인지 벽에 물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면 얼룩도 함께 지워진다. 식초 외에도 레몬즙이나 물에 적신 녹차티백을 사용해도 좋으며 커피메이커와 전기주전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식초물이 가열되어 커피메이커의 여과기를 청소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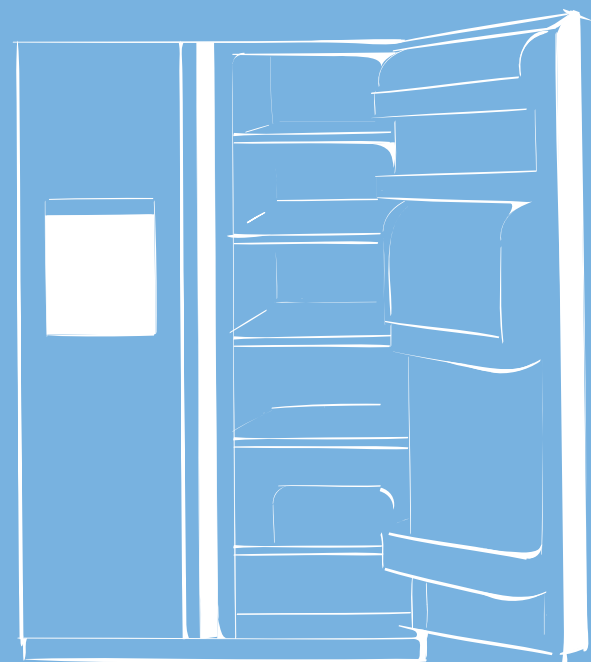


## 세탁기

비눗물을 사용하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행구는 세탁기의 특성상 세균이나 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탁기 안의 세탁조는 찌든 때와 세제찌꺼기가 가득한 세균의 온상이다. 베이킹 소다를 물에 개어 헹굼이나 스펀지로 세탁조의 내부를 닦아주면 숨겨진 시커먼 때가 드러날 것이다. 세탁조 전용 세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온수를 넣은 세탁기에 세제 500g을 완전히 녹인 후 세탁, 행굼, 탈수의 표준코스로 운전하면 말끔히 청소된다. 오염이 심하다면 2-3회 반복하고, 깨끗한 물로 행궈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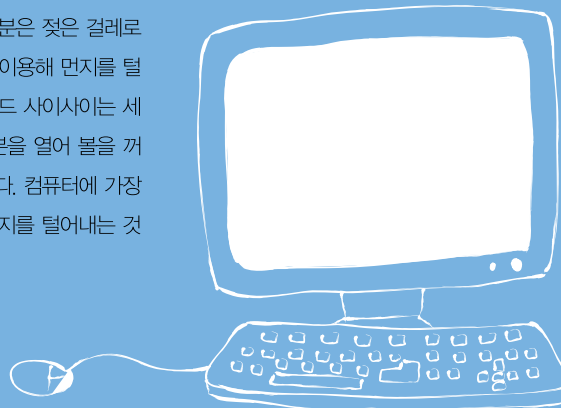
## 컴퓨터

모니터는 초극세사 헹굼이나 마른 걸레 등을 이용해 먼지를 쓸어내고, 다른 부분은 젖은 걸레로 닦는다. 컴퓨터 장비 중 세균이 가장 많은 키보드는 뒤판을 분리해 청소하는데, 먼지 솔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 세제를 풀어놓은 물을 분무기로 뿌려 때를 벗겨낸다. 손이 닿지 않는 키보드 사이사이는 세제 묻힌 헹굼을 일자드라이버에 씌워서 사용하면 쉽게 청소할 수 있다. 마우스는 아랫부분을 열어 불을 꺼낸 후 메틸알콜로 닦아내고 인쪽에 끼어있는 먼지 역시 메틸알콜을 묻힌 면봉으로 청소한다. 컴퓨터에 가장 많은 먼지를 쌓아두는 본체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부를 열어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좋다.



## 냉장고

냉장고 청소 시 많은 이들이 음식이 녹거나 상할 것을 염려해 전원을 켜 채로 후딱 해치우려고 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를 빼고 상할 염려가 있는 음식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자. 냉장고 안의 분리되는 선반은 꺼내 세제를 푼 물에 담가두고, 내부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순으로 닦는다. 스팀기계를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을 냉장고 안에 잠깐 두어 때를 불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소 칸 서랍도 꺼내 세제로 닦아준 후, 햇볕에 바짝 말린다. 마무리로 알코올이나 식초를 묻혀 소독한다.



## 집에서 찾아 쓰는 천연 세제, 베이킹 소다

탈취와 세정능력이 뛰어난 베이킹 소다는 천연 세제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키친타월이나 걸레, 헹굼 등에 베이킹 소다를 묻혀 가전 제품을 닦으면 눈에 보이지 않던 묵은 때가 싹 벗겨진다. 베이킹 소다는 물에 쉽게 녹아 제품의 표면에 손상을 시키지 않는데 물에 개어 분무기에 넣을 정도로 묽게 만들거나 걸쭉한 상태인 페이스트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악취 해소와 부품 부식방지도 효과적이다.





#### 타이어업계 최초 AEO 인증 획득

넥센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관세청이 인증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인증(AEO)을 획득했다.

이는 세계 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세관 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안전 관리기준,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EU 등 5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 절차상 포괄적인 혜택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수출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넥센타이어는 이번 인증으로 수출입 통관이 보다 간소, 신속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외 경쟁력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1월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한 데 이어 AEO까지 획득해 타이어업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수출 인증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 글로벌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2011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에서 넥센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브랜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GCSI 인증제는 일본능률협회 컨설팅이 개발한 평가시스템으로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별 글로벌 산업 경쟁력 지표를 제공해 고객만족 경영을 지원하는 글로벌 평가제도다.

넥센타이어는 그간 업계 최초로 명품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한발 앞선 제품개발로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 사내 협력업체 협약식

넥센타이어는 지난 5월 12일 양산 본사에서 사내 협력업체 협약식을 치렀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과 양산지청 이정조 지청장을 비롯한 노동청 관계자, 사내 협력업체 대표자 및 사내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상생협력선언은 기술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다.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넥센타이어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에 발맞춰 서비스품질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는 공인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8년 타이어 및 튜브 제품 사후 서비스부분의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간 넥센타이어는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구매에서 물류, A/S까지 체계화된 대고객 서비스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 경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상

가류파트 힘모아 분임조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 경남도청이 주최한 2011 경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해 설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치러



진 이번 대회에는 가류파트 힘모아 분임조와 재료파트 오봉산 분임조가 참가해 각각 '1등 공장실현을 위한 TPM 활동으로 시간가동률 향상'과 'STEEL BELT 재단 설비 JOINT 공정 개선으로 반제품 부적합품 감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류파트 힘모아 분임조가 설비 부문에서 우수상을, 재료파트 오봉산 분임조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창사 이래 첫 우수상 수상의 기쁨 외에도 전국대회 출전 기회 획득으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 여름 휴가철 맞이 고객 사은행사

넥센타이어가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넥센타이어 전문채널인 타이어테크에서 프리미엄 제품(N9000, N8000, N7000, N6000, N5000, CP672 등)을 구매하는 고객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품 2개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 원권, 4개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 원권의 주유상품권을 현장 지급한다.

또 타이어를 구매하고 받은 보증서를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모든 고객에게 넥센히어로즈 경기관람권 2매를 증정하는 행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수상 기념으로 온라인 댓글달기 이벤트도 펼쳐져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50만 원 주유상품권(1명), 2등에게는 10만 원 주유상품권(2명), 3등에게는 프로야구 목동경기장 초대권 2장(50명)을 증정한다.

#### Change & Innovation Manager Course

넥센타이어가 전 과장직급을 대상으로 Change & Innovation이란 슬로건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넥센타이어가 직면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의 조직과 조직원의 변화 혁신 필요성 인식, 성장한 조직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계층별 필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7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합숙 및 단체 프로그램으로 조직력과 협동심, 단합심 등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한일남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밀리언야드컵' 후원

넥센타이어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간 펼쳐진 한일남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밀리언야드컵'을 공식 후원했다.

경남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간판스타 양용은을 비롯해 2008, 2009년 코리안투어 상금왕 배상문, 일본의 골프스타 이시카와 료 등 양국 대표 20명이 참가했다.

3일간 포섬·포볼·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3가지 방법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한국 대표단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금 20만 달러는 한국선수들 이름으로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되었다.



- 농구장 바닥에 깔린 재활용 타이어